



교육연합신문



2026년 3월 11일 (수) 제439호 (창간 2009년 1월 22일)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서울 수도전기공고, AI 인재 양성 ▶4면

AI와 로봇 기술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가운데, 첨단 기술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산업 인재 양성이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교장 최명호)가...



부산에원중·고 만학도 441명 결실 ▶11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부산에원중·고등학교가 2월 24일 성인반 졸업식을 개최하고 441명의 만학도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목포제일정보중·고 평생교육원 ▶13면

전남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원장 조영희) 3월 6일 배움으로 인생후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입학식이 있었다. 신입생은 초등문해과정 158명, 중학문해과정 44명, 총 202명이다.

교육부, 4~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공공·산업 인프라 안전관리·보안 시스템 고도화

올해부터 약 50만3000명 대상 4703억 원 지원... 2027년 3~5세 전면 시행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3월 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체계를 강화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4세까지 확대해 약 50만 3000명의 유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정책 확대에 따라 2026년

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유아 약 50만 3000명을 대상으로 총 4703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이며 기관 유형별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어린이집 기

타 필요경비 월 7만 원 수준으로 기존 지원 단가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행한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이 줄었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부모 역시 "교재교구

와 체험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제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올해는 4~5세 유아까지 지원하고, 2027년에는 3~5세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월비 또는 어린이집 필요경비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김병성 기자 kbs@

지난 2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드론쇼코리아(DSK 2026)' 첫날, 드론 기반 실내의 종합 위치인식 보안플랫폼 전문기업 (주)에이엔알(대표 이재균)과 GeoAI 기반 인프라 관리 전문기업 (주)드로미(대표 이승호)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드론 기술과 공간 정보 인공지능(GeoAI)을 융합해 공공·산업 인프라의 안전관리 및 보안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사는 각 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차세대 스마트 인프라 관리 플랫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주)에이엔알은 드론 기반 실내의

통합 위치인식 기술과 보안플랫폼을 통해 산업현장, 공공시설, 재난 대응 분야에서 정밀 위치추적 및 통합 관제 솔루션을 제공해 온 기업이다. 특히 GNSS 음영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한 복합 위치보정 기술과 실시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강점으로 하고 있다. (주)드로미는 GeoAI 기술을 기반으로 도로, 교량, 철도, 산업단지 등 주요 인프라의 상태를 분석·예측하는 전문기업으로, 드론 및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구축과 AI 기반 유지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드론 기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 고도화 ▲AI 기반 시설물

안전진단 자동화 ▲국내외의 스마트 시티 및 공공안전 사업 공동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에이엔알 이재균 대표는 "드론을 활용한 위치인식 보안 기술에 GeoAI 분석 역량이 더해지면 보다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안전 고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주)드로미 대표는 "양사의 기술 융합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인프라 상태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전남교육청,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회 의결 환영

김대중 교육감 "K-교육 모델 선도... 재정 확보·교원 정원 특례 등은 보완"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특별법안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자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 이번 법안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특별법안에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자치 활성화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심의한다는 데 주목했다. 특히,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교육자치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명시해, 향후 교육자치 발전 추진 동력을 확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특별법이 교육자치 조직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별법에는 교육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교육행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공무원과 교원 특별전형 등을 통해 지역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특히 중앙정부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역으로 이양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자율학교와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통합학교, 외국교육기관, 공립대안학교

등의 설립과 운영도 지역 여건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군·구 단위의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과 교육장 공모제 운영 근거도 함께 명시해, 기초자치단위 중심의 교육자치 역시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법안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 되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교육으로 꽃피울 소중한 토대"라며, "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해, 전남광주특별시를 'K-교육'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남교육청은 이번 법률안이 교육자치 발전의 큰 틀은 마련했으나 ▲교원 정원 추가 확보 특례 ▲교육 재정 안정적 확보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법안 보완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장성 삼계중, IB 교육 토대 다지다

독서·토론·글쓰기 중심 단계별 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삼계중학교(교장 김미애)는 3월 5일부터 '삼계독서인문학교'를 운영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서·토론·글쓰기 중심의 단계별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실시했다. 삼계독서인문학교는 "책으로 나를 찾고, 토론으로 세상을 읽고, 글

쓰기로 미래를 열다"라는 목표 아래,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자기 이해,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 IB MYP 관심학교·연구학교 운영과 연계하여 IB가 강조하는 탐구·사고·소통 역량의 기반을 독

서인문교육을 통해 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2월까지 ▲준비 ▲실행 ▲확장 ▲정리의 4 단계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학년별로 주제 도서를 선정하여 읽고, 핵심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성찰 글쓰기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틀림이 아닌 다름'을 경험하고,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자세를 기르는 동시에, 삶과 연결된 가치와 태도를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김미애 교장은 "독서인문교육의 핵심질문은 IB의 개념적 탐구 질문과 맥을 같이 한다"며 "독서를 통해 배경지식을 쌓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며, 글쓰기를 통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은 IB ATL(학습 접근 기술) 역량을 기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충열 기자 2580news@daum.net

https://worldfurni.com

부산·경남 가구 조달 판매 1위

WORLD FURNITURE

상담전화 1588-3886

ONLY WORLD BENEFIT

BENEFIT 01	BENEFIT 02	BENEFIT 03
연계고용담부금	총액 계약	수의 계약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	조달청과 수의시담 하여 계약을 체결	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 가능

주식회사 월드퍼니처 | 1588-3886 | 부산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23

무안교육지원청, 새학기 등교맞이 캠페인

무안사랑유치원·사랑초·무안희망중 3곳 개교... 환영 인사·응원 메시지 전달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은 지난 3월 3일 무안사랑유치원, 사랑초등학교, 무안희망중학교의 개교와 함께 2026학년도 새 학기 시작을 기념하는 '등교맞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교육 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 학교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안전하고 쾌적

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운영을 비전으로 삼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등교맞이 캠페인 현장에서는

“무안의 꿈, 오늘 여기서 시작합니다”, “새 학교, 새 출발!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개교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김보훈 교육장은 “새 학교의 개교는 무안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뜻깊은 출발”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배움, 함께 만들어가는 무안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오양길 기자 2580news@daum.net

구례 간문초등학교, 4명의 새 가족 맞아하다

신입생과 전·입학생 맞아 첫 출발 응원... '바·스·樂 특색교육' 중심 운영

구례군에 위치한 간문초등학교(교장 최강희)가 따뜻한 환영 속에 신입생과 전·입학생을 맞이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황미경 간전면장이 네 명의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대신 전했다. 부면장

으로 축하하며, 아이들이 지역의 희망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행정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현재 전교생 21명이 함께 배우고 있는 간문초등학교는 '바·스·樂 특색교육'을 중심으로 자연과

예술, 마을이 어우러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은 교실을 넘어 숲과 들, 마을 곳곳에서 체험하며 배우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성장한다.

최강희 교장은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깊이 바라보고 더 따뜻하게 손을 잡아 줄 수 있다”며 “100년의 역사와 전통 위에 아이의 웃음이 중심이 되는 학교,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社說

교과서도 못 읽는 아이들, '후천적 난독'의 늪에서 구해야

단순히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도구인 문해력이 무너지면 공교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어휘력 부족으로 인한 국어 사교육비가 타 과목보다 가파르게 상승(10.8%)했다는 사실은, 공교육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해력 결핍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문해력 교육을 단순히 국어 수업의 일부가 아닌, 전 국가적인 생존 전략으로 다루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위기의 핵심 원인은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1분 내외의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긴 글을 읽을 때 시선이 방향하고 집중력을 잃는 '후천적 난독' 증상을

보인다. 뇌가 즉각적인 보상에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지면서, 인내심을 갖고 문맥을 짚어가는 고차원적 사고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시대적 변화로 보기도 한다. 종이책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에 과거의 독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이미지와 영상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텍스트 중심의 교육이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영상 매체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할 뿐,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지 못한다. 모든 고등 사고와 학문의 기초는 정교한 텍스트의 이해에서

출발한다. 어휘를 몰라 교과서를 완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하다. 기초 체력 없이 기술만 배울 수 없다. 문해력 없는 디지털 활용 능력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정부와 교육계는 지금이라도 읽기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솜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긴 호흡의 독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과서 어휘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사교육비 폭증을 잡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들의 손에 다시 책을 쥐어주고, 문장을 끝까지 읽어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채움에이치알다·우즈벡 나망간세종학당, 국제교류 활성화

글로벌 청년 역량 강화 위한 협력 방안 논의... 향후 업무협약 체결 추진

(주)채움에이치알다(대표 이수연)가 우즈베키스탄 소재 나망간세종학당과 국제 교류사업 확대 및 글로벌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공식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월 26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양 기관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학생 교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제 협력사업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대학생 한국 유학 연계 및 단기 연수 프로그램 개발, 문화·산업 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채움에이치알다는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세부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고, 향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체계적인 국제 교류사업

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양 기관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공식 협약을 통해 청년 교류와 교육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나망간세종학당 측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교육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국제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실무회의 후 (주)채움에이치알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인천 중구 청년내일기지를 방문해 청년센터에 대한 소개를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고, 업무협약 체결 이후 단계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안용섭 기자 ays@

한국항공대, 80.1억 투입 에너지혁신연구센터 구축

무탄소 연료 가스터빈 설계·제작·안전 국가 R&D 수행·에너지기술 핵심인재 양성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허희영)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무탄소 연료 가스터빈 설계·제작·안전 혁신연구센터'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2월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6년간 총 80.1억 원을 투입해 교내에 에너지혁신연구센터(연구책임자 한국항공대 광재수 교수)를 구축하고, 무탄소 연료 기반 가스터빈 분야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전 사업은 한국항공대가 중심이 돼 대학·산업체·정부출연연구기관·에너지 공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운영된다. 인하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 질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등 무탄소 연료 가스터빈 시

스템 운용 기술을 연구하며, 무탄소 연료 전환 시 응용 가능한 호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연구 분야다. 아울러 관련 안전 기술과 운용 기술을 체계화하고,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해 연구개발과 교육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전 사업은 한국항공대가 중심이 돼 대학·산업체·정부출연연구기관·에너지 공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운영된다. 인하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 질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등 무탄소 연료 가스터빈 시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편집인 한승균
우 135-95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호(충무로 4가)
국독문/대표번호 02-541-2000 서울본부 1899-0954
인천본부 032-429-1000 충북지사 043-292-0779 영남본부 054-273-3336
대전지사 1666-0536 울산지사 052-276-0904 호남본부 0505-629-3366
전북지사 063-226-0119 부산지사 051-711-1444 제주지사 1522-1160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유연 기자 lyy@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우선구매대상 “우수발명품”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XingQ Table

조달청 G2B 식별번호
24823144 / 24860039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설치 적용 분야]

-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 교실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키즈 카페, 체험관, 교육관, 과학관, 공공기관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www.creple.co.kr

“나주 ‘애(愛)’·전남 ‘의(義)’ 품고 자란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글로벌 배움 여정 시작

나주북초등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13명과 함께 띄우는 희망의 첫걸음

나주북초등학교는(교장 최옥희) 3월 3일 2026학년도 신입생 13명의 힘찬 첫걸음을 응원하는 입학식을 개최했다.

국가적인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2026학년도 광주·전남 지역에서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무려 36곳(광주 2곳, 전남 34곳)에 달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나주북초 교정에 울려 퍼진 13명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도약의 핵심 동력은 전남교육(교육감 김대중)과 나주교육의 감정을 학교 현장에 맞게 꽃피운 나주북초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에 있다. 나주북초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큰 꿈을 키워가는 학교’라는 굳건한 비전 아래, “나주 ‘애(愛)’ 시민으로… 전남 ‘의(義)’ 시민으로”라는 특색 교육을 적극 전개했다.

특히, 전남교육의 핵심 방향인 ‘전남형 시민교육(전남 의(義) 교육)’을 학교 특색으로 완벽히 녹여내어 역사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의로움을 실천했던 전남의 숭고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 3년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수학여행을 진행하며 지역을 넘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만의 특색교육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에 우리 지역 나주를 사랑하는 ‘나주 애(愛)’ 교육이 더해져, 바른 인성과 굳건한 가치관을 지닌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는 든든한 토대가 학부모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변정빈)이 주최한 ‘2025. 제2회 나주교육박람회’를 통해 혁신도시의 과대·과밀 학급에서 고민하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나주북초만의 특색교육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수 유입의 또 다른 강력한 근거는 ‘1, 2학년 영아 특색 교육’이다. 저학년부터 어린 교사와의 밀착형 영어 수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도심 대형 학교 부럽지 않은 질 높은 글로벌 외국어 교육 환경을 제공

하며 학부모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

이러한 교육활동 노력 속에 학교를 향한 끈끈한 내리사랑도 나주북초만의 자랑이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나주북초등학교 이동열 총동문회장이 후배들의 학업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염원하며 장학금 400만 원을 쾌척했다. 선배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훈훈한 감동을 선사한다.

최옥희 교장은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입학생이 급감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학교만의 궁지인 ‘애(愛)’와 ‘의(義)’ 시민 교육, 그리고 맞춤형 원어민 영어 특색 교육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13명의 소중한 신입생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13명의 아이들이 따뜻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큰 꿈을 키워가는 자랑스러운 전남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공동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진성 기자 2580news@daum.net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김명환)는 3월 2일 교내 도담관과 각 교실에서 2026학년도 유·초·중·고 신입생 입학식 및 개학식을 열고 글로벌 환경 속 새로운 배움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 신입생 20명을 비롯해 초등 1학년 151명, 중학교 7학년 198명, 고등학교 10학년 173명 등 총 543명의 신입생이 참석해 해외에서 한국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학교생활의 첫발을 내디뎠다.

학생들은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

김명환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타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여러분의 용기는 그 자체로 큰 도전이자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에게는 “해외 생활 속에서도 자녀에게 한국의 정체성과 언어, 문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교는 학생들이 한국인의 뿌리를 바탕으로 글로벌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생활 전반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고 밝혔다. 각 교실에서 진행된 개학식에서는 교장·교감과 담임교사들이 학생들과 첫 인사를 나누며 새 학년의 목표와 학교생활 방향을 안내했다. 또한 새로 부임한 교원 소개가 이루어져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출발을 알렸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관계자는 “재외국민 학생들이 학업과 정서 발달을 균형 있게 이룰 수 있도록 안전 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세계로 확장하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연 기자 lyy@

전남교육청, 네팔 성커라폴시·엄홍길재단 협약 연장

전남휴먼스쿨 교육 교류·지원 사업 지속… 글로벌 상생 모델 강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네팔 성커라폴시 및 엄홍길휴먼재단과의 기존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연장 협약을 3월 4일 체결했다.

이번 연장 협약은 2020년 성커라폴시에 설립한 전남휴먼스쿨과 교육 교류 및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류 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협력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협약은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국제 교육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엄홍길휴먼재단과 협력해 네팔 지역 내 학교 건립 및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남의 학생들이 네팔 현지를

방문해 한국문화 체험 부스 운영, 친선 스포츠활동, 학교 외벽 페인팅 등 교육·문화 교류 및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협약 연장을 통해 글로벌 교육 협력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네팔 현지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상호 문화 이해와 국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전남교육청, 전남학생교육수당 단계적 확대 지급

초등학생 국가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개정에 능동적 대응

전라남도교육청(김대중 교육감)은 최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정책 변화에 맞추어 전남학생교육수당 운영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초등학생이 연차적으로 국가 아동수당을 지원받게 되면서, 전라남도교육청

은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지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재원을 중·고등학생 교육복지 확대에 단계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교육복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중·고등학생은 진로 탐색, 체험 활동, 심화 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임에도 상대적으로 직접적 교육 지

원이 제한적이라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국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학생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기자수첩

동래의 만세, 기념을 넘어 도시의 품격으로

3월의 동래는 단순히 봄을 맞이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1919년의 시간을 현재로 불러내며, 도시의 정체성과 책임을 동시에 환기하는 무대가 되었다. 동래구가 주관한 3·1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해마다 열리는 기념행사라는 틀을 넘어, 지역 역사자산을 교육과 공동체의 가치로 확장하려는 의지가 담긴 자리였다.

행사는 부산3·1 독립운동 기념탑 참배로 시작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헌화는 형식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어 내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삼창이 이어졌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태극기를 들었다. 그 장면은 세대 간의 기억 계승이라는 상징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동래구가 역사적 동선을 세밀하게 반영했다는 점이다. 동래시장과 수안인정시장 일대를 잇는 만세 행렬은 1919년 당시 실제 만세운동이 전개됐던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과거의 현장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걷게 함으로써 체험형 역사교육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래는 부산에서 가장 치열하게 3·1운동에 응답한 지역이다. 장터와 골목, 동헌과 읍성 일대는 민족의 자존을 외치는 공간이



황오규 기자

었다. 평범한 상인과 학생, 이름 없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총칼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동래구가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도시 브랜드의 일부로 재해석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올해 행사에서는 동래 출신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의 삶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강화됐다. 지역 인물을 통해 독립의 의미를 구체적 서사로 전달했다는 점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역사적 인물을 지역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재조명한 점 또한 교육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수동식 태극기 인쇄 체험과 독립선언서 낭독 프로그램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다. 맥 냄새가 번지는 인쇄 체험 공간에서 학생들은 질문을 던졌다.

“그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나요?”


이 질문은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성과일지 모른다. 역사는 외

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묻는 순간 살아난다. 동래구가 마련한 이 재현의 장은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질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3·1운동의 본질은 ‘만세’라는 구호에 있지 않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결단,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내려놓았던 책임에 있다. 오늘 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공간에서 그 장면을 되살린다. 그렇기에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 앞에서 용기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동래구의 이번 재현행사는 지역 역사자산을 문화·교육 콘텐츠로 확장한 모범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참여 확대, 역사 공간의 상시 해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어진다면 동래의 3·1정신은 도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역사를 품은 도시는 단단하다. 기억을 자산으로 만드는 도시는 품격이 있다.동래의 봄바람 속에서 울린 만세는 과거의 메아리가 어떤 도시로 서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다. 기념을 넘어 교육으로, 교육을 넘어 책임으로 이어질 때, 동래의 3·1정신은 도시의 품격이 된다.

한원시스템



(사) 한국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협회 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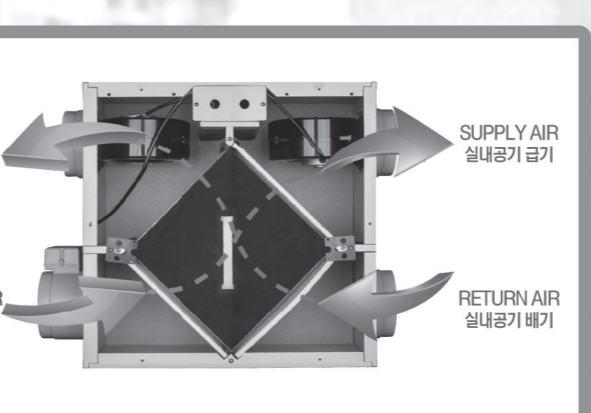
HW SYSTEM

◆ 환기장치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저희 한원시스템은 다수의 학교와 관공서,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끝!

EXHAUST AIR
외부공기 배기



OUT DOOR AIR
외부공기 흡기

SUPPLY AIR
실내공기 급기

RETURN AIR
실내공기 배기

전열교환기(환기장치)

필터교체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세요!

환기장치유지/관리 이제 전문기업에 맡기세요!

문의전화 : 1577-2036

서울 수도전기공고, AI 시대 에너지 인재 양성

취업률 91.2% 전국 직업계고 상위권... AI·로봇·에너지 결합한 마이스터 교육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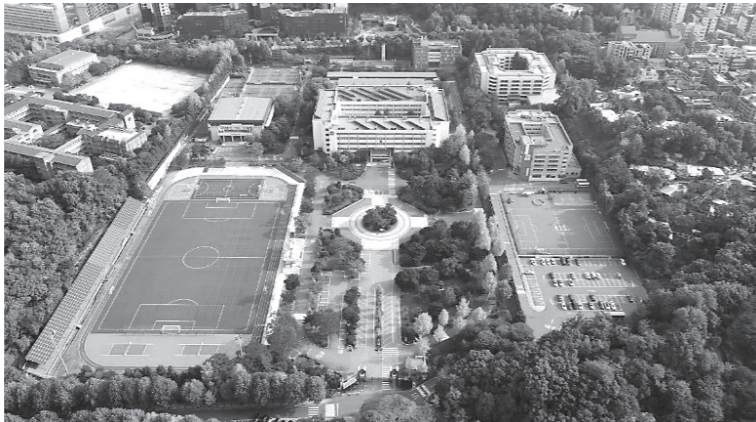
AI와 로봇 기술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가운데, 첨단 기술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산업 인재 양성이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교장 최명호)가 AI·에너지 융합 인재 양성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 이후 산업계에서는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것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에너지 기술"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라인,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 투입 등 첨단 산업 전반에서 에너지 제어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산업 변화 속에서 한국 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는 에너지 산업과 AI 기술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수도전기공업고의 경쟁력은 입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전체 경쟁률 2.49대 1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 경쟁률을 보면 서울 지역 2.17대 1, 지방 지역 2.9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단위 에너지 특성과 마이스터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취업 성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학년도 기준 취업률은 91.2%로 전국 직업계고 상위권을 기록했다. 졸업생들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해 삼성, 포스코, DB하이텍 등 반도체와 신소재 분야 대기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학교는 1학년부처 '취업 3개년 로드맵'을 운영하며 NCS 모의시험, OPIc 영어 말하기 교육, 면접 컨설팅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수도전기공업고 교육 혁신의 핵심은 '융합형 기술 교육'이다.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가천대

학교와 협력해 AI, 2차전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와 협력해 '반도체 공정·장비 기술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과 연계된 기술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반 로봇 응용 교육'은 수도전기공업고 교육 혁신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학생들은 가상 환경에서 로봇 제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뒤 클라우드 연동과 실제 장비 검증까지 이어지는 3단계 교육 과정을 경험한다.

학교 본관 4층에 마련된 135㎡ 규모의 메이커스페이스는 이러한 교육 혁신의 중심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3D 프린터와 CNC 조각기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융합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학생들은 1인당 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연말 경진대회와 전시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한다. 학과별 팀 프로젝트 수업과 자율 동아리 활동, 외부 공모전 참여 등 다양한 실천형 교육도 병행한다.

수도전기공업고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영국, 필리핀, 중국, 일본 등과 연계한 글로벌 현장학습을 운영하며 대만과 일본과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원어인 강사 수업과 'Lunch Talk Talk'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소통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전인재개발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과 협력해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명호 교장은 "AI와 에너지의 융합은 미래 산업에서 필수 요소"라며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과 융합적 사고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전기공업고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에너지 마이스터고로 성장하도록 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부산성우학교, 2025학년도 졸업식 개최

제18회 초등·제16회 중등 졸업생 총 9명 새로운 출발

부산성우학교(교장 강병일)는 지난 2월 6일 이 학교 다목적강당에서 2025학년도 제18회 초등학교 졸업식과 제16회 중학교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초등학생 6명, 중학생 3명 등 총 9명의 학생이 졸업장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고 2월 22일 밝혔다.

이날 졸업식은 졸업장 수여와 교내·교외상 시상으로 시작했다. 졸업생들은 한 명씩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전달받았으며, 학생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강당에는 따뜻한 박수와 축하의 환호가 이어졌다. 학교생활의 소중한 결실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어 성우학원 이사장의 축사와



강병일 교장의 격려사가 전례저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재학생 대표는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송사를 전했고, 졸업생 대

표는 답사를 통해 그동안의 학교 생활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특히, 졸업식의 마지막 순서로 교직원과 재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만든 '축하 꽃길'이 이어지며 감동을 더했다. 졸업생들은 따뜻한 환송 속에서 학교를 떠나는 아쉬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누었다.

이번 졸업식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기념하고 미래를 응원하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자리였다. 부산성우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내실 있는 교육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은숙 기자 pes@

부산 남구, 기러기문화원 해람학교서 초·중등 졸업식

만학도 꿈 이룬 97세 오상호 여사 졸업장 수여 때 내빈들과 가족들 환호

배움의 길에는 끝이 없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가슴 뛰는 특별한 졸업식이 있었다.

2월 20일 오전 10시 부산 남구 소재 기러기문화원(원장 황영식)에서는 살아 오면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기러기문화원 해람학교에서 초등, 중등 과정을 인정 받는 졸업식이 열려 참석한 가족들과 내빈들의 가슴을 울렸다.

오랜 부산남구청장과 교육 연합신문 황요규 부산대표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졸업식은 97세의 오상호 여사의 인정을 전달과 함께 감사 인사 말에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은 오상호 여사의 불굴의 의지에 모두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이날 학사모와 함께 졸업 가운



을 입은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당당한 만학도의 모습이 보였다.

황영식 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오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하고, 건강을 잘 챙기시고 오래도록 보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ljh@

새 이름으로 맞이하는 첫 입학식

부산여상, '해연여자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오랜 전통을 이어온 부산여상상업고등학교가 '해연여자고등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 신입생을 맞이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해연여자고등학교는 3월 3일 오전 10시, 별관 5층 하늘마루(강당)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

에는 1학년 신입생과 교직원 등이 참석해 새로운 교명으로 시작되는 학교의 첫 입학식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입학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부산여상상업고등학교가 교명을 변경하고 '해연여자고등학교'라는 새 이름으로 맞이하는 첫 입학식이라는 점에서 의미

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은호 교장의 환영사와 신입생 대표의 입학 선서가 이어졌으며, 교직원과 재학생들은 새로운 교명 아래 시작하는 학교의 미래와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다.

박은호 교장은 환영사에서 "해연여자고등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은 단순한 교명 변경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부산여상의 전통과 교육 철학을 이어가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해연여자고등학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주인공"이라며, "도전과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해연여자고등학교는 부산여상상업고등학교의 전통을 기반으로 미래 교육환경에 맞는 새로운 교육 비전을 실현하며 학생들의 꿈과 가능성을 키워가는 학교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숙 기자 pes@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연리지 제작·배부

학생맞춤통합지원·지역연계 교육과정 지원 기관 106곳 수록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3월 2일 올해 중부 지역(종로구·중구·용산구) 교육자원을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자료집 '연리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2026 중부 지역

자원자료집 연리지'는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이다. 교감·교원·교육복지센터장으로 구성된 TF 위원회 검토에 참여했으며, 총 106개 기관의 정보를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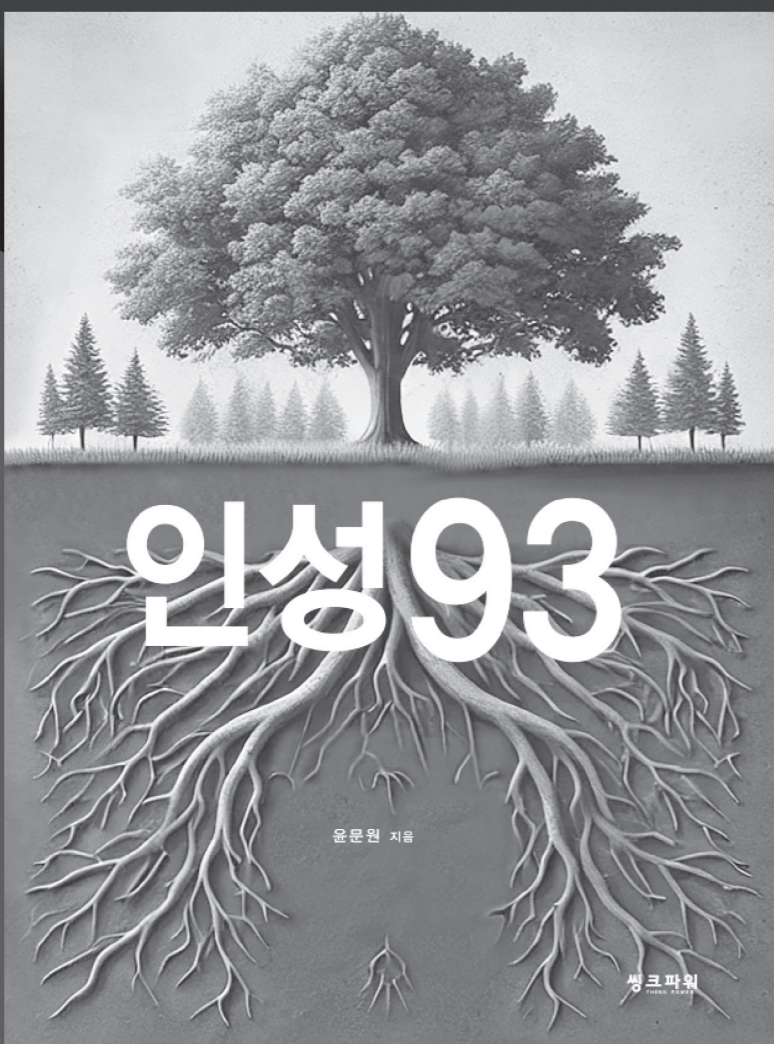
자료집에는 44개 복지 기관과

62개 지역 기관이 포함됐다. 각 기관별로 △기관 소개 △복지 프로그램 △교육 내용 △대상 학년 및 분야 △이용 정보 △신청 방법 등을 담아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도규 교육장은 "학생맞춤통합 지원 시행을 앞두고 확대 제작한 중부 지역자원자료집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교육 자원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저자 윤문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씽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랑,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 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서울교육청, 45년 만에 용산 신청사 입주

13일~21일까지 순차적 이전... 정근식 교육감 “서울교육 행정 체계 미래형 전환 출발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3월 종로구 기존 청사에서 용산구 신청사로 이전해 새로운 교육행정 운영체계를 시작한다고 3월 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부서별 순차 이전 방식으로 신청사 입주를 진행한다. 교육청은 신청사 교육현장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국 단위로 단계적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981년 입주 이후 약 45년 동안 사용해 온 종로구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사 이전을 추진해 왔다.

교육청은 지난 2017년 청사 이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월 신청사 건립 공사에 착공했으며,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 업무 공간을 넘어 교육 정책 기획과 학교 지원, 시민 소통 기능을 통합한 종합 교육행정 플랫폼으로 조성됐



다. 신청사는 학생과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교육행정 공간을 지향한다.

저층부에는 민원실과 시민 라운지, 교육정책 홍보·전시 공간을 배치해 방문 시민이 서울교육 정책과 운영 방향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중·상층부에는 정책 담당 부서와 회의·협업 공간을 집중 배치해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이고 협업 중심 행정체계를 강화했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정책 기획과 학교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행정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신청사는 스마트 오피스 구축과 입주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첫째 주 서울시의회 관계자와 인근 학교 학생, 시민참여단, 출입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신청사 사전 공개 행사도 진행한다.

민원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실은 주말에 이전하며, 이전 기간 동안 각 부서 민원은 서울교육 콜센터 '1396'을 통해 안내

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신청사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서울교육 행정 체계를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서울교육 7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정책은 더 빠르게, 지원은 더 촘촘하게, 소통은 더 가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정책과 학교 현장, 시민을 연결하는 교육행정 중심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청, ‘긴급교실안심SEM’ 확대 운영

사업 예산 8억 원대 증액 2.6배 규모...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3월 4일 교육활동 침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실에 전문 인력을 긴급 지원하는 ‘긴급교실안심SEM’ 사업을 2026학년도부터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실 내 문제 행동과 수업 방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긴급교실안심SEM’ 사업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교실에 전문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현장 요구를 반영해 사업을 신설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393건의 긴급 지원을 실시했다.

사업 운영 결과 교원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이 98.6%를 기록했다.

교사들은 ‘담임이 혼자 상황을 감당하지 않아도 돼 심리적 부담이 줄었다’, ‘전문 인력 지원 덕분에 수업과 학급 운영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간편한 신청 절차와 신속



한 인력 매칭 시스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사업 예산은 올해 3억 1500만 원에서 8억 31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도 약 2.6배 확대된다. 내년도 ‘긴급교실안심SEM’에는 전직 교원, 상담사, 청소년복지사 등 총 180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학교 지원 기간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한다. 주 15시간 이내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상황의 긴급성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교육지

원청 ‘서울SEM119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과 사전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청 접수 후 최대 2일 이내 인력 배정을 원칙으로 신속한 현장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원이 위기 상황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교실 안정과 학생 학습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649억 원 투입

정근식 교육감 “경제적 여건 어려운 학생 더 촘촘히 지원 교육 격차 완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교육급여 수급 학생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익자부담금(소규모매점형 교육여행·수련활동비),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지

난 해보다 8%인 약 48억 원 증액했다. 주요 항목 지원 단가도 상향해 교육복지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단가는 초·중·고 평균 6% 인상했다. 무상급식 제외 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는 기존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항목 중 ‘학교장 추천제’ 비율은 지난 해보다 5% 확대했다. 소규모매점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도 각각 10만 원, 5만 원 상향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

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가구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해 지원 유지 여부를 확인받는다. 다만 형제·자매가 지원 대상이라도 초등학교 신입생은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해 교육 소외를 해소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겠다”며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집중신청 기간 운영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북부교육지원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공동 대응

노원·도봉경찰서·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 학생 보호 강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3월 6일 서울 북부 지역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노원경찰서, 도봉경찰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 교육과 신속한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예방 교육 필요성, 피해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 기관은 아

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 대응을 위한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생·학부모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홍보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전문 강사 인력풀 구축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학교 예방 교육 운영 ▲피해 발생 시 전문 상담 지원 ▲신속한 수사와 보호 조치 등이다.

이번 협력은 교육기관과 수사기관, 정책 수행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기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서울북부교육지원

청은 예방 교육 홍보와 참여 학교 모집, 교육 일정 편성 등 행정적 지원을 총괄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원경찰서와 도봉경찰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해 중·고등 학생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보호 조치를 담당한다.

또한 네 기관은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수사·지원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식 교육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가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올해 노원·도봉 지역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지역 기반 예방·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지사 및 대리점 모집

티에프메디칼 (주) 점주님만의 혜택

- 높은 마진율
- 노후대비
- 확 줄어든 재고부담
- 홍보 및 행정지원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살리는 건 그 어떤 수술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티에프메디칼과 점주님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미래 점주님들은 아래로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생명을 살리는 시간 단 4분



BIOTA-3 수동식 심폐소생기

전라남도 213개 (초·중·고) 학교 시범 설치



COMPANY: 티에프메디칼(주)
 대표번호: 1899-0971
 Tel: 031)941-0970
 Fax: 031)949-8445
 ADDRESS: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39(우. 10882)
 E-MAIL: tfmedical@naver.com

Q 당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A 수동식 심폐소생기(Biota-3)는 전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기항공고, 시설 확충 넘어 수업 혁신

체육관·급식소 증축 예산 확보 이재한 광명시의원 감사패... 캡스톤 디자인 교원 연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교장 유형진)는 지난 2월 25일 교내에서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사업 예산 확보에 기여한 지역 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2026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교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인프라 재설계'와 '수업 혁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감사패는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한 광명시의원에게 전달됐다.

감사패에는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사업과 관련해 광명시 대응 지원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다.

학교 측은 이번 증축 사업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실습 위주의 교육과 체육·복지 환경을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학생 만족도와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한 의원은 "광명공고 시절부터 학교의 변화를 지켜왔다"며



"의회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학 중에도 교육 혁신을 준비하는 교직원들의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감사패 수여식 이후에는 특성화고 혁신 모델로 주목받는 캡스톤 디자인 운영 사례 공유 연수가 진행됐다. 연수에는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타 학교 관리자 등이 참석해 직업계고 전환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발표를 맡은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이덕효 교감은 "직업계고는 산업 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단순한 학과 조정이 아니라 학교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

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통폐합과 교육과정 재설계를 통해 학생 모집률을 46%에서 65%로 끌어올리고, 이후 지원율 140%까지 상승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캡스톤 디자인을 중심으로 현장 체험, 전문기관 연계 교육, 국제교류를 결합해 '학교 브랜드'를 구축한 전략이 주목을 받았다.

캡스톤 디자인은 단순 프로젝트 수업을 넘어 전공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과제로 구현하는 실무 적용형 수업이다.

연수에서는 ▲건축과의 목조주택 제작 ▲스마트팩토리과의 PLC 기반 제작물 ▲자동차과의 업사이클링 전기차 제작 ▲에너지·항공 분야의 전자·식물 키트 제작 등 구체적인 사례가 공유됐다.

이덕효 교감은 "특성화고 학생에게 전공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캡스톤 디자인이 효과적"이라며, "산업체와 연계한 실질적 성과물이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경기항공고는 시설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개선과 함께, 수업 혁신이라는 소프트웨어 강화 전략을 병행하며 2026학년도 개학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형진 교장은 "지역사회와 지자체 협력은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학생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력"이라며, "체형 중심·성 중심 교육을 더욱 체계화해 진로·취업·진학 경쟁력을 높여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성 기자 kbs@

경기 여주초, 역세권 신축 교사 이전 개교

118년 전통 있는 새 출발... 교육·지역 상생 복합공간 기대

경기도 여주초등학교(교장 원웅덕)는 3월 4일 경기도 여주시 역세권 신축 교사에서 '신설대체 이전 개교 기념식'을 개최하고 118년 전통을 잇는 새로운 교육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여주시청, 여주시의회, 총동문회,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가 참석해 학교 이전 개교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참석자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교가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1908년 개교한 여주초등학교는 여주 지역 근대 교육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오랜 기간 지역 인재를 배출하며 지역사회 교육 중심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도심 공동화와 시설 노후화로 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학교 이전 계획이 추진됐고 약 8년간의 준비 끝에 이번 개교로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김상성 교육장은 기념사에서 "여주초등학교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전통을 계승하면서 미래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



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축 교사는 학생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복합 교육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학교복합시설 조성이 예정돼 있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덕 여주시 부시장은 축하사에서 "여주초등학교 이전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335억 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은 "여주초 이전은 여주시 교육환경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초·중·고 학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

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춘석 전 여주시장과 이항진 전 여주시장도 참석해 학교 이전 추진 과정과 의미를 공유했다. 관계자들은 남한강 인근에 있던 기존 교사서 역세권 중심지로의 이전이 도시 발전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희 총동문회장은 "오늘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학교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날"이라며 "동문들도 학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며 새로운 교정에서의 출발을 공식화했다. 여주초등학교는 새 교정에서 '나에게 당당하고 너에게 따뜻한 우리'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인다.

김병성 기자 kbs@

PMZ

Pozzalan Mat Zone

평균 98.2%, 원적외선 방사율 90.4%의 친환경 매트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포졸란매트존입니다.

서귀포시
'치유의 숲' 조성

의정부시
맨발로(路) 조성

용인시
'여성길(Earthing)' 조성

▶ 4줄란 매트길의 특성



1. 원적외선 방사
세포조직을 활성화시켜
온열효과로 인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향균
포졸란 분말을 표면에
도포하여 불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준다.



3. 탈취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막
역할을 하여 기존제품 대비
부식속도가 느리다.



4. 친환경성
천연소재로서 자연환경과
이질감 없는 경관의 연출이
가능하고 수요가 높다.

UARU (주)유아르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교산동막길 108-36 T. 033-808-7013 www.uaru.co.kr

시가 언어 넘고, 에듀테크가 미래 이어

안산원곡초, 경기미래학교 1년 맞아 "모두의 교실 실현"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은 관내 안산원곡초등학교(교장 김주영)가 2025년 6월 경기미래학교 준공 이후 인공지능(AI)·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교육 과정을 본격 운영하며 모든 학생이 소외 없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지난 2월 25일 밝혔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원곡초가 '에브리데이(Day)터(基) : 여기는 모든 사람의 학교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 누구나 동등하게 배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학교 환경 조성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미래학교 운영 성과는 교육 다양성을 오히려 발전 동력으로 삼아 교육 질을 높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안산원곡초는 2026년 3월 기준, 전체 36개 교실 전자철판 전면 설치 및 학생 1인당 태블릿PC·노트북·PC·VR 기기 등 '1인 4기' 스마트 학습 환경을 완벽했다. AI 로봇

이 학습 비서로 교실을 순회하고 수업 시작과 동시에 디지털 칠판이 켜지며, 책상 위에서 XR(확장 현실)로 세계가 펼쳐지는 미래형 일상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교사들은 하이러닝 등 AI 기반 수업을 통해 축적된 개별 데이터를 분석해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의 학업 성취를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다국어 AI 실시간 통역 시스템이다. 안산원곡초는 이주배경 학생과 특수학급 학생들의 수업 참여 보장을 위해 AI 실시간 통역 및 다국어 자막·음성 번역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한국어가 서툰 학생도 수업의 전 과정을 동등하게 이해하고 발표·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교실'이 실현되고 있다. 이는 이주배경 학생의 포용을 넘어, 언어 장벽 해소를 기술로 실현한 경기도 내 선도적 사례로서 안산교육지원청은 이 모델의 지역 내 확산

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형 특별실과 공간 인프라는 학생들의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스포츠테크실(클라이밍 월·터치패드 신체활동), CREATOR SPACE(크로마키 콘텐츠 제작·VR 가상 세계 설계), 에듀테크실(AI 로봇 튜터링), 스마트과학실, 스마트팜(코딩으로 식물 재배) 등 각 공간은 학생이 학교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실감형 학습 콘텐츠로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공간 기반은 즐거운 참여와 자발적 주체성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자연스럽게 함양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안산원곡초의 변화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미래학교의 자원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상생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김주영 교장은 "매일 쌓이는 디지털 경험의 데이터가 아이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탄탄한 기틀이 될 것이다. 미래교실의 선형적 노하우를 축적하고 보급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학교로 모든 교육공동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상민 기자 ssm@

여주교육지원청, 학교장 통합회의

학교 현장·교육행정 협력... 학생 맞춤 통합지원 논의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성)은 3월 5일 여주 선별리호텔 세종홀에서 여주 관내 초·중·고등학교장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학교장과 소통하는 현장 맞춤형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교육지원청은 학교 교육의 주요 책임자인 학교장들과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교육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 1일 자

신임 및 전임 교장 소개 ▲2026 같이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향 ▲여주 세종 같이 공유학교 운영 계획 ▲여주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새 학기 학사 일정과 관련한 교육과·행정과 주요 사업 안내 등이 진행됐다.

참석한 교장들은 학교 현장의 주요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학생안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협력적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성교육 내실화와 안전하고 존중이 살아 있는 학교 문화 조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누며 학생 중심 교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상성 교육장은 "학교는 교무학사와 학교행정이 조화롭게 운영될 때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다"며, "AI 기반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 역량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에는 기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이 자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성 기자 kbs@

교육단상

고병구 '어쩌다 의사가 되어'를 읽고



한 해의 작은 달 2월, 설 명절과 임춘이 들어 있는 달, 봄이 다가오는 기다림과 설렘이 있는 달도 벌써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되었다. 옛말에 복(福)은 받는 것이고, 덕(德)은 쌓는 것인데, 손(手)으로는 나누고 발(足)로 걸어서 건강을 지키고, 얼굴(容)은 항상 미소를 짓고, 마음(心)으로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책(冊)을 골라 독서 하면서 자아(自我)의 성숙과 마음을 키우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이번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읽을 거리를 찾다가 몇 권의 책 중에서 우연히 "어쩌다 의사가 되어"라는 에세이를 발견하고 단숨에 반쯤 읽었는데 바로 이 병원의 대표원장이자 저자인 고병구 원장이 의사로서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돌보면서 환한 얼굴로 설명하는 열정이 존경스럽고 위의 말에 부합된 분이 라는 책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는 우리 교육연합신문 전국 애독자와 네트워크를 통해 이 귀한 자료를 알리고, 국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향후 진로와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고 또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이 저자의 경험을 공유해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장하고 싶다.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없는 이익에 대한 탐닉에 빠진 부류들이 많다. 노동을 조롱하고 성실함을 비웃으며 요행을 미덕처럼 기대하고 비트코인, 주식, 불법 도박, 마약, 스포츠베팅 같은 투기에 쉽게 빠져드는 현실의 일탈에 젖어 드는 청소년들에게는 시금석이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을 확신한다.

노력으로 쌓은 인생만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필요한 것은 쉽게 버는 돈이 아니라 탐과 기다림, 인내, 그리고 정당한 성공, 공정한 책입감, 사회적 신뢰감을 갖추는 것이다.

이 책은 총 6부로 구성돼 있고 ▲어쩌다 의사가 되어 ▲추억 속의 나날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나를 위한 시간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 ▲마음을 시에 담다로 나누어 구성됐다.

■ 보이지 않는 얼굴들

"의사로서 나 자신을 평가한다면 나는 그저 평범한 의사에 불과하다. 사회를 위해 봉사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의사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보통의 의사다. 대부분 의사들처럼 내가 배운 지식을 통해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직업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환자들이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다."

저자 고병구 원장은 겸손(謙遜)이 넘친다.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이다. 슈바이처 박사는 "겸손은 크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것"이며, 상대를 존중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이해하면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부가 의사인데도, 40년 전에는 부산 1급지(광복동, 서면 등)에 개업해서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충분조건에도 중심지를 벗어나 어렵고 불우한 환경의 당감들을 선택해, 지금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아들 고지환 원장도 부산의대를 졸업, 동 대학에서 소화기내과 진료 교수를 역임했고, 지난해에는 소화기 종양학 분야의 세계적인 SCI급 국제학술지 저널 표지모델로 선정돼 장식한 능력자인데도 대학병원, 대형병원에 보내지 않고, 가족 3명의 의사와 외부 원장 3명과 함께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전혀 과시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다.

또, 책 표지 디자인이나 제목도 좀 멋지게 지을 수 있는데도, 의사 가운을 입고 근엄한 모습을 취한다거나 진찰하는 모습을 택할 법한데, 순하고 인한 녹색 바탕에 별이 새겨진 나무(Tree) 한 그루가 전부일 만큼 겸손하다. 물론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책의 머리말에서 나오긴 한다.

■ 머리말

'무슨 말을 해야 할까?'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그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의 답으로 주말이면 가끔 아내와 함께 운전대를 잡고 시골길을 달릴 때 고향처럼 느끼는 마을 어귀마다 서 있는 고목의 모습을 본다. 그래, 저 나무처럼 살자. 저 나무처럼 늙어 가자. 나무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마지막 날에 나는 웃으면서 떠나리라"는 문장을 대하면서 나도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무는 우리에게 열매를 제공하고, 잎은 그늘을, 봄에는 새싹으로 희망을, 여름에는 잎의 그늘로 쉬는 휴식처로,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겨울에는 나뭇잎으로 우리에게 인내심과 기다림의 미학을 일깨워 준다. 평생의 꿈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겠다는 고병구 원장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90년대 중반 한 직장 동료가 해인사 백련암 성철스님의 수좌스님을 뵈러 간다가에 금일봉을 보시했다니 범명을 하나 받아 왔는데 '하목(夏木)'이었다. 나의 이름도 직업도 모르는 상태인데 나는 꺾자 놀랐다. 우연하도 내 한자 이름에는 나무목(木)이 3개 들어 있어, 나는 내 아이들도 hamoksong으로 쓰고, 호(號)도 하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 잊을 수 없는 한마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학생은 본적이 없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많이 배운 사람으로 여기던 한적한 시골, 산간벽지의 오지 경북 문경의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오직 농사일만 선택할 수 있었던 운명에서, 그래도 꿈이 있어 전역 국비 지원

인 철도고등학교를 가려고 했을 때, 김천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던 재종형(고무림 선생)이 찾아와 아버지와 나의 진로를 의논하던 중 "애를 왜 바보로 만들려고 하세요?"하던 그 말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받았던 느낌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고무림 선생의 안내로 오늘날 고병구 저자가 된 것은, 마치 존 레논이 아들을 위해 작사한 Beautiful Boy의 가사 일부를 연상케 한다. "너의 마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단다. 날지 못한다고 미리 겁먹지 마라. 세상에는 너를 보호해 줄 울타리가 있단다." 그 울타리는 가정, 부모, 형제, 학교, 선한 이웃 등이 있다. 문경에서 못살던, 오직 철도고를 꿈꾸던 소년에게 김천고와 경북의대를 안내한 울타리가 되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게 의해 운명이 결정되고 인생길이 바뀌게 되는 숙명적인 계기가 되는 일이 간혹 있다. 바로 이 저자도 그 은혜를 입었지만,



백양제일내과의원 고지환 원장(좌)과 고병구 대표원장(우)

본인의 재능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과 행복은 유지할 수 없었다. 요즘도 의과대학에 진학하려면 초등 학교부터 과외를 받고, 고교 성적이 상위 1~5%에 들어야 하며, 경제적 능력과 부모의 관심과 본인의 순한 어려움과 특출한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면 힘드는데, 하물며 50년 전 국립의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재종형님의 선견지명과 본인의 얼마나 혹독(酷毒)한 노력을 했을지 예견할 수 있다.

■ 나의 모교 숭실학원 김천고등학교

김천고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 마지막 궁녀이자 육영사업가였던 최송실당 여사가 설립, 영친왕 보모상궁으로 책봉, 고종황제로부터 송실당 칭호 하사. 재선 전부를 해인사에 회사 예정이었는데, 만해 한용운 스님의 권유로 조국의 암울한 미래를 위해 인제 양성을 결심, 1931년 김천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평북 전주에 남강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와 더불어 민족사학 진흥, 개교 당시 영남의 오아시스로 통함. 지금도 3.1절에 입학하는 전통. 1907년 을사늑약도 영친왕이 일본에 불모 잡채간 후 귀국 때는 부산에 상륙해 김천에서 내려 김천고 '정갈제'에 들려 송실당을 진전하였다고 함.

지금은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로 전

국적으로 240명 선발. 교훈은 "깨끗하게, 부지런하게"(남자고 아닌 여자고 교훈처럼). 풀어 쓰면 마음(心)은 깨끗하게(眞實), 몸(身)은 부지런하게(誠實)라는 뜻이다. 저자는 김천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 것이 일생일대의 자부심이자 자신의 은혜로 여기고 있다. 이 책이 인연이 되어 올해(2026년) 3월 1일 모교 입학식에서 동문 대표 격려사도 하게 되었다.

참고로 도산 안창호(1878 ~1938)선생도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워 무실역행(務實力行)을 강조했다. 공리공론을 배척하고, 참되고 성실하게 힘써 행할 것을 강조. 實은 힘쓰자는 것으로 진실, 성실, 거짓 없는 것을 말하며 역행은 반드시 이루자는 뜻.

■ 연좌제의 회생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무관 후보생으로 중위, 대위 계급을 받고 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그런데 저자는 6.25때 당국의 월북으로 연좌제에 걸려 무관 후보자적

을 박탈당하고 이등병 의사가 되어 위생병으로 3년을 보낸 원통함이 있었다.

전역을 석 달 남긴 1980년 10월 어느 날 영내 보조를 서고 있는데 국보위에서 연좌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방송을 듣고 할 수만 있다면 남은 3개월이라도 군위관으로 보내고 싶었다는 말이 나온다.

얼마나 원통하고 가슴 아파 제대 후 한동안 동기를 모임에서 군대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고 뒷자리로 물러나고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30년 후 대전 군의학교에서 열리는 아들 지환군(부산의대 졸)의 임관식에서 대위 계급장을 다는 아들의 모습에서 "비로소 연좌제의 그늘에서 벗어나는구나"하는 위로와 묘한 감회를 느꼈다고 했다.

*연좌제(緣坐制) :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친척, 범죄자의 주변인인 이웃만으로 처벌하는 제도. 해방 후 남북, 월북자 가족은 공무원은 물론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당함. 1980년 헌법 개정 폐지.

■ 잊을 수 없는 추억

추억에는 좋은 추억과 나쁜 추억, 그리고 부끄러운 추억과 가슴 아픈 추억이 있다. 좋은 추억은 잔잔하게 스쳐 지나가는 산들 바람같은 어릴적 동심의 추억부터 기억하기 좋은 것. 나쁜 추억은 죄를 지었거나 상처를 입힌 잔인한

추억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추억은 미숙함으로 수치(羞恥)가 담겨있는 추억으로 자신이 좀 더 자랄 수 있었던 것이고, 가슴 아픈 추억은 칼날 같이 날카롭게 가슴을 찌고 지나가는 보석 같은 추억이고 나를 자라게 하는 추억이다. 저자는 시간을 과거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요술 지팡이라고 위로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세월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추억을 심어 주는 일에 내 삶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 꽃과 바람과 물

사방이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문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보이는 것이 산과 꽃과 바람과 물이었는데, 이젠 도시의 빌딩숲 속에서 매일 병원 건물 사무실 속에서 환자만 대하는 숨막히는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만 산뜻한 들국화가 되고, 시원한 솔바람이 되고, 맑은 물길에 되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두고두고 이 자리를 지키다가 고향 언덕에 재로 뿌려지는 게 나의 운명인지도 모른다고 토로한 부분에서는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느끼며, 70대 중반을 넘긴 저자나 독자인 내가 공통점을 갖는 부분인만큼 그래도 남은 삶의 막바지에서 깨끗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건강한 오래 사세요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로 1년 늦게 입학했고, 의예과 시절엔 고열, 오한을 동반한 장티푸스에 고생했고, 43세 때 갑자기 대장에 천공이 생겨 장 절제 수술과, 곧 B형 간염에 걸려 친구들 사이엔 이미 죽었다고 소문이 났다.

그러렴 허약하고 병치레 심한 몸이 어느 날 B형 간염균이 사라졌고, 이것은 로포 당침될 만큼 드문 확률이라고 한다. 그 후 식사를 잘하고 60이 넘어 운동을 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고기와 채소, 낱과일과 비빔밥 등 "밥이 보약이다"란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즐겁게 먹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맛있게 먹고, 즐겁게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게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위의 내용은 의사의 전문적 처방이 아닌 일반 생활인들이 경험에서 말하는 순수한 지혜의 덕담 같아서 더욱 친근감과 신뢰감이 든다. 의사인 저자가 오히려 환자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오래 사세요"란다. 얼마나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했으면 이런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

위 내용 외에도 '소 팔자 인생', '나를 위한 시간', '눈썹과 인덕',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굵은 인생길' 등 수많은 울림과 되새겨야 할 내용과 말들이 많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도를 독립시킨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 생각 났다. "절망을 느낄 때 마다 나는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진리와 사랑의 방법은 늘 승리했다. 우리에게 선과 진리와 사랑은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준다. 글 전체가 연좌제에 대한 불평 즉 돌은 던지지 않았지만 약간 주먹을 쥐고 울분을 터뜨린 것 외는 모두가 긍정적이고, 가슴을 울림이게 하고 심장을 안정시켜 주었다. 결국 자기 직분을 다할 때 세상은 아름다

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기쁨과 행복이 멀리 있다 생각지 말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웠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인연이 되어 지난 3월 1일(삼일절)날 모교 김천고등학교 입학식에서 동문 대표로 "격려사(激勵辭)"한 내용을 소개한다.

■ "송실 후배들에게"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 하는 것,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자기 능력을 극대화하는 비결,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은 오늘 여러분처럼 김천고 입학이었으며,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김천고를 졸업했다는 사실이다.

김천고는 내 정신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 우리 김천고는 일본의 압제하에 있던 암흑기에 대한 미래를 위해 송실당 할머니께서 세운 민족학교이다. 초대 정열모 교장 선생께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투옥되고, 학교는 공립전환이라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러 개교 100주년을 눈앞에 두었다. 이처럼 유서깊은 학교에 여러분이 들어오게 된 것은 크나큰 행운이며 영광이다.

--- 종락 ---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후배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시오. 장차 술과 담배, 혹은 다른 약물들을 가까이 할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라면 단호히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나는 70대 중반으로 들어섰다. 그동안 큰 수술을 받았고, 수개월 동안 병을 앓으면서 죽을 고비도 넘겼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 만큼 건강한 몸을 지니고 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하루 8시간 이상 환자를 보고, 나머지 먹고 자는 시간 외 모든 시간은 땀을 흘리며 보냈다.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진다. 별도의 휴식 시간을 갖지 않아도 지치는 일이 없다. 나처럼 바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바로는 아무리 바빠도 성취 여부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가 가진 비결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 뿐이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 실천하시기 바란다.



■ 송근식

◇ 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장
◇ 前부산예문고·광명고·경혜여고·건국중학교 교장
◇ 학교법인 선화학원 이사

김홍제의 목요칼럼

자본주의 시대의 금융교육

'문맹'은 불편할 뿐이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위협한다

『돈의 심리학』과 『돈의 방정식』이라는 책을 설날 연휴에 읽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돈에 대한 개념이 너무도 없다는 자각에서 구입한 책이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대중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 주는 증표라고 생각한다. 지구 위 모든 나라를 아우르는 테마는 경제, 즉 돈이다. 정치, 교육, 사회, 환경에 모두가 돈이 들어가 있고 전쟁도 돈이 들어가 있다. 돈이 중세 시대의 종

교처럼 군림하고 있다. 이를 직시하고 올바른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을 사랑한다면 학생이 돈 중심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는 교육이 옳은 방향이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도 그만큼 커지리라고 믿는다고 한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건강, 경험, 존경 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꽃이 하나도 없는 외계

에서 온 사람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꽃을 보면 감탄을 멈추지 못할 것이다. 소중한 것이 너무도 흔하고 많으면 우리가 그 감사를 모른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월급이 딱 2배만 더 있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한다.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400만 원이면 행복할 듯하고,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800만 원이면 훨씬 행복하다고 하고, 8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억 600만 원을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저자는 그런 행복은 일시적이라고 했다.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얻고 멋진 결혼을 하는 것은 사실 일시적인 행복을 위한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일시적인 것에 있지 않다. 지속적인 행복은 자신에 대한 신뢰와 타

인에 대한 공감과 존경,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행복과 돈의 관계를 거시적이고 진솔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학생 중심 교육이라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이고 양심적 태도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고도 구구로서의 교육을 한다던 교육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영교육과정은 아이즈너(Eisner)가 『교육적 상상력(Educational Imagination)』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과정을 가리켜 영(null) 교육과정이라 부르면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공식적 문서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어도 실제 수업이나 운영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학생이 학습할 기회가 없는 교육 내용

나 경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육과정 속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 어떤 것은 선택되고 또 다른 내용은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과정의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가 변하면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 중에서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반성하고 점검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 노동이나 경제활동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 당연히 회사의 근무에 대한 교육, 일의 정당성, 권리의 주체성, 진정한 행복과 경제 등을 교육에 넣어야 한다. 현대의 노동은 노예의 노동이 아니다. 현대 시민은 창조적이고 효율적이고 협력적이고 나라와 국가를 위한 태도와 방식을 고민하는 시민 근로자여

야 한다.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은 불편할 뿐이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위협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 경쟁력과 개인 행복을 위해서는 진정한 진정성 있는 청소년기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김홍제
◇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인천대중예술고, 전국 첫 대중예술 특목고 전환

2027학년도부터... 전공 심화 과목 확대 등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예술 인프라 구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를 2027학년도부터 예술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이번 전환·지정은 '인천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대중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심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정으로 인천대중예술고는 전국 최초의 공립 대중예술 특목고로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전공 심화 과목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실기 강사를 현재보다 2배 더 배치해 학생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세분화된 진로 설계와 실기 포트폴리오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 심화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으로 연계돼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전공 실적이 대학 진학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학생 개인의 역량과 진로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인천은 기존 인천예술고에 이어 두 번째 예술 계열 특목고를 갖추게 돼, 지역 인재의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인천

안에서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인천예술고등학교가 인천만의 특색있는 공교육 예술 전문 교육 기관으로 함께 성장해, 인천이 대중예술과 문화 콘텐츠 인재 양성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장아초, 신입생·가족 입학 초기 불안감 해소

신입생 적응 돕는 학교 방문의 날 운영... 운영 전반·교육 환경 안내 신뢰 형성

인천장아초등학교(교장 안영화)는 지난 2월 28일 2026학년도 신입생과 가족을 학교로 초청해 학교 시설 및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2026학년도 신입생 가족 학교 방문의 날 행사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초등학교 공간을 가족과 함께 미리 경험함으로써 입학 초기에 느낄 수 있는 불안감 완화 및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부모에게 학교 운영 전반과 교육 환경을 투명하게 안내해 가정과 학교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교 방문의 날 행사에는

2026학년도 신입생 85가족 286명이 방문했으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보건실과 급식실, 돌봄교실, 도서관, 컴퓨터실, 강당, 그린나래터(학생 쉼터), 상사나래터(놀이공간), 교육복지실, 놀이공간 등 학교의 주요 공간을 가족과 함께 돌아봤다.

특히, 신입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1학년 각 교실에 방부해 공부할 자리에 앉아보고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주요 장소에 교직원이 배치돼 친절히 안내를 진행해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교 주요 공간에 만족도 조사 QR 코드를 부착해 학부모들의 소

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다음 해 운영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천장아초 관계자는 "이번 학교 방문의 날을 통해 신입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학교생활을 시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 방문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해 잘 적응할 수 있었는지 걱정이 많았는데, 자녀와 함께 입학 전 학교 시설을 돌아보며安心이 된다"며,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 강화고, 자율형 공립고 2.0 교직원 워크숍

학생 자기주도 진로설계 역량 함양 교육과정 운영 방향·세부 실천 과제 도출



인천 강화고등학교(교장 조형규)는 지난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강화에서 '2026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교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2년 차를 맞아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과정 모델을 고안·적용해, 학생의 자기주도 진로설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세부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워크숍에서는 구체적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진로·진학 맞춤형 상담 강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유기적 연계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이 집중

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모든 교직원이 '학생에게 어떻게 정성을 쏟을 것인가'를 주제로 분임 토의를 진행하며, 학업 지도뿐 아니라 생활지도·정서 지원·개별 성장 기록 관리 등 전인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조형규 교장은 "2025년이 자율형 공립고 2.0의 토대를 세우는 해였다면, 2026년은 그 토대 위에 정성을 더해 학생 개인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교직원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모아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강화고등학교는 앞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공교육 혁신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용섭 기자 ays@

독서 습관 길러 학생성공시대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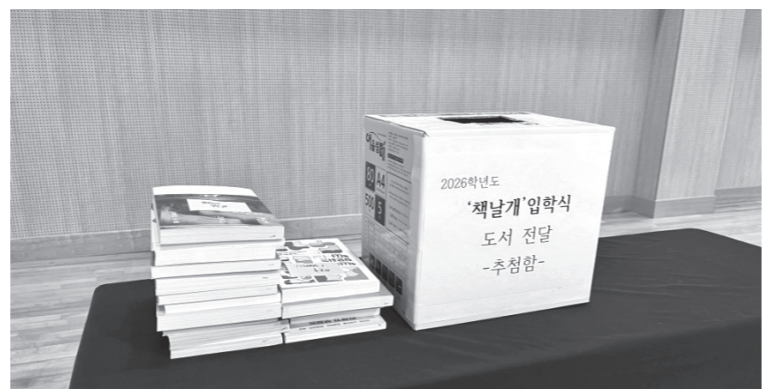
인천 학익고, 1학년 신입생 대상 책날개 입학식

인천 학익고등학교(교장 김경심)는 지난 3월 3일 1학년 신입생 175명을 대상으로 '책날개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책을 선물하고, 독서와 함께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교 중심의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각 교과 담당 교사들이 직접 분야별 도서를 추천하고 선정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선정된 도서는 앞으로 '한 학급 한 권 읽기' 활동의 자료로 활용돼 교내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학생 16명을 추천한 교사들이 직접 책을 전달하고 따뜻한 덕담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해, 새롭게 시작하는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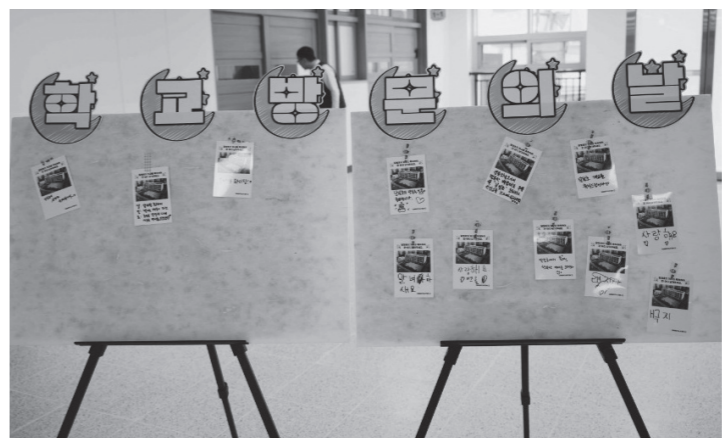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

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르고, 평생 독서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용섭 기자 ays@

"새로운 학교와 첫 걸음 함께"

인천달빛초, 예비 학생들·학부모 방문의 날 행사



인천달빛초등학교는 3월 개교를 앞두고 지난 2월 26일, 예비 학생들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의 날' 행사를 열고 교실, 도서관, 특별실, 체육관 등 학

교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자녀들이 생활하게 될 교육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방문 행사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바라는 점과 응원의 메시

지를 남기는 방명록 작성 활동도 진행했는데, 참여한 한 학부모는 "달빛초 첫 걸음을 함께 해서 너무 행복하다. 명문 학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달빛초등학교 한 관계자는 "개교 전부터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 방문의 날'은 단순한 시설 공개를 넘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보는 소중한 출발점이 됐다.

달빛초등학교는 개교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안용섭 기자 ays@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문의: 010.3398.7325
010.5204.8271



주식회사 베스트링크

S2B 물품번호

2025 0131 055 1212

2025 0131 055 1061

2025 0131 055 0333



최고의 장비와 최저의 비용,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차별화된 행사를 약속 드립니다”

음향

- 이벤트 음향
- 소형 음향
- 중형 음향
- 대형 음향

조명

- 이벤트 조명
- 중소형 무대조명
- 대형조명

무대

- 이벤트 무대
- 소형 무대
- 중형 무대
- 대형 무대

영상

- 빔 프로젝터
- LED 영상
- 촬영 및 중계

부산교육청, 부산형 해양교육 전문성 강화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서 11명 자문단 위촉... 지역특성 반영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월 25일 오전 동구 초량동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해양교육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해양교육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양교육 자문단'은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대, 한국해양대 등 해양 관련 기관 및 클러스터 소속 전문가

와 교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부산 해양교육 정책 및 발전 방향 자문 ▲지역 해양 관련 기관·대학과의 연계 방안 제안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설립을 포함한 해양교육 인프라 구축 방향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계기로 부산 해양의 역사·미래 가치를 교육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

양한 역할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자문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향후 자문단 운영 방향과 부산 해양교육의 중·장기 추진 과제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이 가졌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해양교육 자문단의 정책 및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해양교육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해양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양교육 자문단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부산이 지닌 해양도시로서의 강점을 교육에 적극 반영해 학생 중심 해양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ljh@

부산체육중·고등학교 제20대 윤강 교장 취임

"학생선수들 꿈과 열정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직원 한마음으로 노력"

부산체육중·고등학교(교장 윤강)는 지난 3월 3일 제20대 윤강 교장으로 취임식을 했다고 알렸다.

윤강 신임 교장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1996. 02.)한 후, 같은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2002. 8.)와 체육대학에서 박사학위(2024. 2.)를 취득하며 체육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주요 경력으로는 부산중학교와 남천중학교(2000. 3.-2009. 2.), 부산체육고등학교(2009. 3.-2015. 2.) 교사로 근무한 후, 화명고등학교(2015. 3.-2016. 8.)를 거쳐 부산광역시교육청 체육 장학사(2016. 9.-2022. 2.)로 활동했다. 이어 부산체육고등학교 교감(2022. 3.-2024. 2.), 부산학생인성교육원 한빛학교장 겸 기획운영부장



(2024. 3.-2026. 2.)을 역임하며 학교 행정과 체육교육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윤강 교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체육중·고등학교는 명실상부한 부산을 대표하는 엘리트 체육 산실이며, 부산체육영재들을 발굴·육성하며 부산 체육의 뿌리를 지

탱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학교의 위상을 강조했다.

이어 전임 교장들의 학교 경영 철학을 계승하며 첫째, 학생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인적·물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훈련 환경 및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둘째, '극기하는 자 미래를 얻

다'는 교훈을 실현하기 위해 체육 계열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의 환경을 마련하고 셋째, 선한 리더십을 갖춘 부산 체육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선수 정립과 인성교육에 학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강 교장은 "부산 체육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선수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학교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취임 의지를 밝혔다.

장병진 교감은 "이번 취임을 계기로 엘리트 체육 성과와 인성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체육고등학교로 거듭날 것"이라며, "부산 체육의 중심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망했다.

부산체육중·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엘리트 체육과 인성교육의 균형을 통해 부산 체육의 중심 역할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윤영 기자 juy@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 제28회 입학식

김석준 교육감 "최고의 마이스터로 설 수 있기를"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손재형)는 지난 3월 2일 교내 다목적 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28회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유영현 사하구의원, 이영수 (주)테란 대표를 비롯한 지역사회 관계자와 학부모 170여 명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

발을 축하했다.

이번 입학식은 공휴일에 진행돼 학부모들의 참여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평소 근무 등으로 학교 행사 참석이 어려웠던 학부모들이 함께 자리하며 신입생과 가족이 입학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김석준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이곳에서의 배움과 도전을 바탕으로

로 3년 뒤 교문을 나갈 때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마이스터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테란 이영수 대표가 우수 신입생 5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장학금은 학생 개인별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입금돼 장기적인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 졸업생이기도 한 유영현 사하구의원은 후배들을 향해 "적극적인 선택의 용기가 결국 미래를 만든다"며, "이곳에서의 3년이 단순한 학창 시절을 넘어 스스로에게 큰 자부심으로 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기술 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황오규 기자 hog@

부산예원중·고 만학도 441명 배움 결실 맺어

김석준 교육감 성인반 졸업식 참석 격려... 평생학습 가치 다시 일깨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부산예원중·고등학교가 2월 24일 성인반 졸업식을 개최하고 441명의 만학도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예원중·고등학교는 만학도 어머니들을 위한 2년제 중·고등 과정으로 운영되며, 배움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품은 성인 학습자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가정과 생업을 병행하며 학업에 매진해 온 441명의 졸업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생들은 늦깎이 학생으로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배움의 길을 완주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졸업은 단순한 학력 취득



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도전과 성취의 상징"이라며,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교육은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순식 교장은 인사말에서 "졸업생 한 분 한 분의 용기와 열정이 오늘의 감동을 만들었다"며 "오늘의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며, 더 넓은 세상에서 다시 꿈을 펼쳐가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졸업식은 가족과 교직원, 동문, 지역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졸업생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교정을 떠났다.

이번 졸업식은 '연재든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하며, 평생학습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뜻깊은 자리로 기록됐다.

손영숙 기자 syw@

가정폭력·아동학대 없는 부산 만들기 캠페인

부산교육발전위원회·연계가족센터·연계육아종합지원센터, 보라데이 협약



부산교육발전위원회 임지아 회장, 연계가족센터 김재오 센터장, 연계육아종합지원센터 최진영 센터장은 3월 3일 3시 '보라데이 무한 약속' 캠페인 추진을 위한 3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를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보라데이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가족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캠페인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3월 8일 11시부터 13시까지 온천천 농구대 앞 또는 무대 인근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부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됐다. 행사 당일에는 ▲보라데이 서약서 작성 ▲응원 염서 작성 ▲리본 뱃지 및 아동학대 예방 팔찌 배부 ▲타투 체험 ▲풍선 나눔 ▲뽑기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서약서 작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단순 홍보를 넘어 지역사회 실천 의지를 확산하는 데 의미를 뒀다. 3개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라데이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연합신문은 언론 협력기관으로서 행사 홍보 및 보도 지원을 통해 캠페인 확산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정현 기자 ljh@

Beautiful 4 years —
신라대학교

이씨의 주인공은 나야!

스스로,
신나게,
나★답게!

Beautiful 4 years—
신라대학교

★신라대 교육은? 미래유망실용교육과 개인맞춤형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성과 공감능력을 갖춘 미래리더를 키워니다

양현준 작, Adult Child
양현준 작가는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박사 과정 졸업생입니다. 홍콩, 스페인의 마드리드, 뉴욕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작품 'Adult Child' 시리즈를 통해 스타작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라대학교 웹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954

충북교육청·괴산군, 지역인재 육성 한뜻

맞춤형 교육·진로 지원 확대... 체인지업 활용 지역 탐방 활성화 업무협약도 체결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 송인현 괴산군수는 6일 오전 10시 30분 괴산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학부모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인재, 지역에서 키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괴산 맞춤형 교육과 진로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 유출을 줄이고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사교육 의존 완화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충북교육청과 괴산군은 지난해 8월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괴산고등학교 입학정원을 132명에서 138명으로 확대했다.

괴산고등학교는 지역 유일의 고등학교로, 농산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모델 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학년도 자율형공립고 2.0에 지정돼 지역 교육 경쟁



력 강화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체인지업을 활용한 지역 탐방 활성화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체인지업은 충북교육청이 2024년 9월 전국 최초로 개통한 GPS 기반 체험형 플랫폼으로,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조성한 둘레길·유적지·지역 명소 등 탐방코스를 탑재하고 있다.

이번 괴산군과의 업무협약은 체인지업 기반 학생 체험활동과 지역경제를 연계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괴산군은 괴산사랑상품권 구입과 밖을 연결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영한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가족 단위 방문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교육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인현 괴산군수는 “교육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학생과 가족이 괴산을 찾는 계기가 확대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역과 관계 없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며 “학부모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체인지업을 통해 배움이 지역을 살리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기성 기자 ygs@**

진로교육원, ‘AX 휴머니즘’ 진로교육 원년 선포

인공지능 전환 기술 활용 맞춤형 진로 설계·학생 개별 상담 강화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진로교육원(원장 조선진)은 2026년을 인공지능 전환(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진로 설계와 학생 개별 상담을 강화하는 ‘미래형 진로교육 고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첨단 기술과 인간다움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진로체함과 상담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진로교육원의 대표 프로그램인 ‘꿈딴음 진로체함’을 고도화한다. 특히 11개 진로체함마을 중 AX 기반 신산업 진로체함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마을과 디지털 증거 분석을 기반으로 과학수사경찰관·유전자분석연구원 등을 체험하는 ‘과학수사마을’의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로심리검사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진로상담마을’에는 브레인체크(BrainCheck) 자기이해 검사를 도입해 뇌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의 성향과 심리·정서 등 개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진

로상담에 활용한다. 창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와 가치 창출을 체험하는 ‘창업경영마을’에는 AI 면접 시스템을 연계해 실전형 진로 코칭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분석 결과와 전문가 상담을 결합한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대학과 협력하는 ‘2026 미래캠퍼스’를 확대 운영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체험하고 학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기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충북 소재 기업과 협력해 산업 현장 기반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10개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지자체와 협업체 AI 신산업 분야 진로체함을 체계화한다.

아울러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AX 기반 진로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해 교육공동체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기성 기자 ygs@**

초등 단계부터 진로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자 연수를 운영하고 교사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초·중·고를 연계한 단계별 진로교육 체계를 정비한다.

특히 ‘진로교육 사각지대 제로’를 목표로 U&I학습유형검사를 바탕으로 초·중·고 대상 1:1 진로상담인 ‘해질녘 진로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청주 중심의 상담 체계를 남부·북부 권역까지 확장해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조선진 진로교육원장은 “첨단 기술의 파도를 타고 미래를 향해 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나’를 발견하고 ‘우리’와 공감하는 인간다움에 있다”라며, “AI 기반의 첨단 인프라와 인간적인 따뜻한 공감을 결합하여, 충북의 모든 아이가 저마다의 빛깔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천고 김주훈,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

금천고등학교(교장 천정희)는 5일 3학년 김주훈 학생이 '26회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APHO 2026)'에 출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8인에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 한국물리학회 올림피아드위원

회는 지난 2월 온·오프라인 교육과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김주훈 학생을 포함한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8명을 국가대표로 확정했다. 김주훈 학생은 물리 분야에서 꾸준한 탐구 활동과 심화 학

습을 이어오며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았다.

제26회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는 아시아 각국 대표단이 참가해 이론 및 실험 시험을 통해 물리학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겨

루는 국제 규모의 과학 경연 행사로, 오는 5월 17일부터 25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다.

김주훈(금천고) 학생은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실험하는 과정이 즐거웠다”라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 대한민국과 학교의 이름을 빛내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기성 기자 ygs@**

증평공업고, 실무 능력 갖춘 지역 인재 만든다

충북비즈니스고·증평군기업인협회, 지역 정주형 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증평공업고등학교(교장 이병호)와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교장 윤승자), 증평군 기업인협회(회장 백선근)는 5일 오후 (주)퍼펙트 대회의실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증평군 기업인협회와 지역 특성화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 양성과 현

장실습 및 취업 연계 등 실질적인 산·학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 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 관내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 정주 인력 확대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병호 증평공업고교장은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해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모든 학교 대상 탄소중립학교 운영

충북교육청, 교원 환경교육 역량 강화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환경교육센터 외우를 중심으로 모든 학교의 탄소중립학교 운영과 교원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한 ‘2026년 충북 환경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센터 외우는 체험형 환경교육과 교원 연수, 학교·가정·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충북 환경교육 거점 기관으로,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 5만 명을 기록했으며 학교 단체 체험, 숲체험,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등 현장 체험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충북 환경교육의 핵심은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학교 운영이다. 모든 학교는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연간 6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학교당 최대 250만 원의 환경교육 예산을 지원해 학교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직접 경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 역량 강화에도 집중한다. 탄소중립학교 연수, 환경인식 아카데미,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연수 등 연간 10종 이상, 1,200여

명 규모의 교원 연수를 운영하고, 70개교 이상을 대상으로 한 현장 컨설팅을 통해 교실 수업에서 실천 중심 환경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자치 활동, 환경교육의 달 운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학교 문화 전반에 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을 통해 실천의 범위를 학교 밖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을 넘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용의 힘”이라며, “환경교육센터 외우를 중심으로 모든 학교가 탄소중립 실천의 주체가 되어, 지구적 문제를 학교와 지역의 삶 속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충북교육청,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지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학교 내 응급상황에 교직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학교 현장을 반영해,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자체 응급처치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직원을 위해 ‘응급처치 상실교육장’을 운영한다.

지역별 거점 장소에 마련해 실습 중심의 집중 교육으로 진행하며, 출장 등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교직원에게 추가적인 이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강사 인력풀’을 구축해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진을 확보하고, 인력풀 소속 강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 학교 현장의 교육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의료 실무연수’를 연 6회 실시·운영해, 실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중심으로 한 사례 기반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유기성 기자 ygs@

100% 참자연 그대로
보리, 현미 쌀국수
참자연 그대로 쌀국수
밀가루 NO!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건강한 국수

- ※ 청원생명쌀로 만든 친환경 쌀국수
- ※ 청주시 학교급식 선정 제품!
- ※ 밀가루 0%, 100% 국산 곡물만 사용
- ※ HACCP 인증 시설 + 특히 받은 국수 제조 기술

※ 우리 아이 급식, 이왕이면 쌀로 만든 건강한 국수로! 밀가루를 전혀 섞지 않고 국내산 곡물만으로 만든 쌀국수! 남는 쌀 소비 + 학생 건강까지 생각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학교 답례품, 선물용으로도 딱!
정성 담은 건강한 국수,
돌잔치,행사,감사 선물로도 인기!

납품,구매문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북로 836. 1층
대표 윤충근 ☎ 010-5485-4748



목포제일정보중·고 평생교육원, 인생 후반 새출발

만학도 초등문해과정 158명·중학문해과정 44명 총 202명 입학식

전남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원장 조영희) 3월 6일 배움으로 인생후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입학식이 있었다. 신입생은 초등문해과정 158명, 중학문해과정 44명, 총 202명이다.

초등문해과정은 3단계로 구분돼 있고 학습자의 실력에 맞춰 배치가 배정되며 주 3회 출석하여 공부한다. 중학문해과정은 초등학력 소지자가 입학할 수 있으며 3년 과정으로 주 3회 출석한다.

초등문해 입학생 가운데 최고령자인 박옥순(79세 해남 산이) 학생은 어린 시절 7남매의 장녀로 태어나 동생을 돌보느라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고 한다. 어린 동생을 업고 초등학교에 가면 아기가 울고 떠돌아 다니다 글을 알람말람 할 때 그 만두어 평생 속 답답한 세상을 살았다. 그런데 목포제일정보중고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해 글을 정확하게 배우고 키오스크 사용법과 핸드폰 사용법을 배워 가슴이 뻥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 70여 년이 지나 바로 그 동생과 손잡고 학교에 입학했다.

어린 동생 돌보느라 학교를 못 갔기에 “니 때문에 나 학교 못간다”며 동생 등거리를 두들기며 울었던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니며 글을 알람말람 할 때 그 만두어 평생 속 답답한 세상을 살았다. 그런데 목포제일정보중고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해 글을 정확하게 배우고 키오스크 사용법과 핸드폰 사용법을 배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

박옥순 씨는 학교에 다니며 배우고 보니, 경로당 다니며 세상 무어 놓고 활동 안 하는 사람과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은 물론 스타일까지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한다. 배움을 통해 제일 기뻐던 일은 키오스크를 통해 차표를 끊고 물건을 주문했을 때라고 한다. 학교에서 배운대로 키오스크에 글자를 터치할 때마다 뿌듯하고 즐겁다고

한다. 곁에 앉은 노인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이리 주세요. 내가 해결해요”하고 차표를 끊어주고 나면 얼마나 뿌듯하고 즐거운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한다.

동생 박순희(71세)씨는 초등문해과정 3년을 마치고 올해 초등학력을 취득했다. 함께 졸업한 다른 친구들은 2년제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순희씨는 해남에서 차편이 잘 안 맞아 주 3회 출석하는 중학문해반에 입학했다.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쉽지만 중학문해는 초등문해와 달리 시간마다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오신다니 기대가 된다고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입학식 환영사에서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김혜진 교장은 “어렵게 결단하고 입학하시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날일 것이다. 배움을 통해 자질을 주문했을 때라고 한다. 학교에서 배운대로 키오스크에 글자를 터치할 때마다 뿌듯하고 즐겁다고

노영식 기자 2580news@daum.net



화순 청풍초, ‘브랜드 있는 작은학교’ 대변신

전교생 15명→30명 학생 수 2배 증가… 유치원 재개원 등 벽지학교 새 바람

청풍초등학교(교장 김효관)가 3일 입학식을 갖고 학생 수 감소라는 흐름을 넘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

2024학년도 전교생 15명으로 운영되던 청풍초등학교는 2026학년도 30명으로 학생 수가 두 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3년부터 3년간 운영이 중단되었던 병설유치원이 4명의 원아로 재개원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원 증가를 넘어,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 만들어진 교육공동체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청풍초등학교 특색 프로그램인 ‘할리우드 영화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주도 영화 제작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학교 이미지를 강화해

왔다. 시놉시스 기획부터 촬영, 편집, 상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 협업 능력, 의사소통 역량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학습의 강점을 살린 개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성장 속도를 존중하는 밀착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기반 국내 체험 학습과 영화 홍보 활동, 밴드 공연 운영, 영어 교육 강화를 위한 글로벌 해외 체험 역시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실 밖 실제 무대에서 배움의 결과를 공유하며 성취감을 경험하고,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학부모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 참여와 지역민들의 장학금 후원이 더해지면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학생을 ‘내 아이처럼’ 돌보는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교육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청풍초 김효관 교장은 “특색 있는 작은학교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교육과정 혁신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전라남도교육청의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체계화하고, 작은 학교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식 기자 2580news@daum.net

전남 목포공고, 2026학년도 입학식… 새로운 100년 출발

모교 출신 가수 박지현 응원… 앨범 1500장 나눔과 함께 응원

전남 목포공업고등학교(교장 조정하)는 지난 3월 3일 교내 강당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서 목포공업고등학교 출신 트로트 가수 박지현의 앨범을 재학생과 신입생들에게 나누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100년’이라는 구호 아래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에 도전하고 있는 모교 목포공업고등학교와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목포공업고 출신 가수 박지현과 그의 팬클럽 ‘엔돌핀’이 합

께 마련한 뜻깊은 선물로 진행됐다. 박지현이 기부한 앨범 1500장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으며, 이를 받아든 학생들은 예상하지 못한 선물에 큰 관심을 보이며 환호했다.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따뜻한 응원의 의미에 공감하며 행사에 박수를 보냈다.

목포공업고등학교는 최근 교육부에 ‘제20차 마이스터고 지정 등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향후 심사를 거쳐 마이스터고로 선정될 경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AI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공업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새롭게 도약할 계획이다.

조정하 교장은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에 위해 동문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목포공업고등학교 출신 가수 박지현과 팬클럽 ‘엔돌핀’이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보내준 응원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교의 새로운 도전

에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목포공업고등학교가 지역 산업을 이끌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의 중심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민 기자 2580news@daum.net



“꽃처럼 피어날 너희의 꿈을 응원해”

영광 영산성지고, 제44회 신입생 입학식 개최

전남 영산성지고등학교(교장 전치균)가 3월 3일 설렘 가득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하며 희망찬 새 학기의 문을 열었다. 학교장의 입학허가 선언과 신입생들의 당찬 선서로 고교 생활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뒀다.

전치균 교장은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써 학교의 역할을 다하고 학교생활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교직원 모두가 노력하여 행복한 영산성지고등학교가 될 것이며, 가정처럼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위해 학생 한명 한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겠다”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가꾸어가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입학식의 하이라이트는 담임 교사들이 신입생 전원에게 장미꽃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시간

이었다. 장미꽃의 꽃말인 ‘사랑’과 ‘열정’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열정적으로 피워내길 바라는 스승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장미꽃을 선물 받은 신입생 민오찬 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라는 낯선 환경에 걱정이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꽃을 주시며 환영해 주시니 큰 격려가 됐다”라며, “내가 이 학교에서 소중한 존재가 된 기분”이라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위한 다짐도 이어졌다. 신입생과 재학생은 ‘비폭력 선언’을 통해 재학 기간 중 어떠한 폭력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는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영산성지고의 교육철학을 보여주며, 선후배가 함께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시간이 되었다.

3학년 김오배 학생회장은 후배들을 향한 진심 어린 환영사로 큰 박수를 받았다. “저 역시 신입생이었던 시절의 긴장을 기억한다”라며, “후배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갈 수 내미는 선배가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공급하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배들을 찾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 신입생들의 긴장감을 덜어주었다.

입학식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입학식에 왔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환한 미소로 아이에게 꽃을 건네시는 모습에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다”라며 “교장 선생님의 말씀처럼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세심한 배려를 확인하며 학교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사제 간의 정과 선후배 간의 배려, 그리고 학부모의 신뢰가 어우러진 이번 입학식을 통해 영산성지고등학교는 2026학년도 희망찬 도약의 시작을 알렸다.

정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우선구매대상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의 친환경 다중 OH 라디칼과 나노버블수를 이용한

그리스트랩 오수정화장치

그리스트랩 오수처리장치로 청소 및 유지관리는 수월하게!
급식 위생과 직결되는 조리실 환경을 청결하게!

주식회사 한스쿨

한아름테크 (전남 총판)

전화 0505-629-3366
팩스 0505-619-3366

전북교육청, 조직문화 개선 체계 본격 가동

12대 실천과제 현장 이행력 강화 위해 '조직문화 공유마당' 구축·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 공간을 마련했다.

6일 전북교육청은 조직문화 비전과 핵심가치, 12대 실천과제의 현장 이행력 강화하기 위해 '조직문화 공유마당'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직문화 공유마당'은 조직문화 실천 사례를 상시 등록·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관·부

서·학교에서 추진한 다양한 개선 사례를 자유롭게 탑재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직문화 개선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유·연결·점검·확산'으로 이어지는 실행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은 각 기관이나 학교에서 등록한 우수사례를 연 1회 선정해 표창·포상하고, 성과평가와도 연계해 실천 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청 장학사, 주무관, 행정실무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문화 개선 추진단'도 운영한다.

추진단은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3대 중점 과제와 12대 실천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행 장애요인을 분석·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우수사례 확산 플랫폼인 공유마당과 추진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조직문화 개선 과제

가 현장에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실행 체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성화 정책기획과장은 "조직문화는 선언이 아니라 공유와 실천, 점검을 통해 완성된다"며 "공유마당이라는 플랫폼과 추진단이라는 실행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교육청의 조직문화가 현장 속에서 체득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신학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총력

집중관리 기간 운영... 학교 내 집단 감염 위험 요인 사전 차단 노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학기 감염병 예방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관리 기간은 학생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학교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등의 집단 감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오는 13일까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와 소수 기관의 감염병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감염병 예방관리 연간 계획 수립 및 방역물품 확보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방역수칙 준수 안내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검진 실시 및 확인 △매일 감염병 현황 파악 및 보고 철저 △초·중학교 신입생 필수 예방접종 홍보 및 이력 확인 등이다.

특히 학교별로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방역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고, 교육청 차원의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호

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과 해외여행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사항 등을 담은 교육 자료를 안내해 각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임영근 문예체건강과장은 "신학기인 학생 간 접촉이 늘어나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중관리 기간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고교학점제 수업 95개 과목 개설

학생 선택 폭 확대... 32개 거점학교서 91개 과목 28일부터 맞춤형 교육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학생의 과목 선택 폭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 수업으로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91개와 '학교 밖 교육(주말강좌)' 4개 등 총 95개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달 28일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난해 1학기 79개에서 16개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이 넓

어졌다.

자율형 공립고와 일반고, 전북외고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심화 과목을 인근 거점학교와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올 1학기에는 전주고와 양양고 등 32개 거점학교에서 △인공지능 수학 △생명과학 실험 △고급 물리학 등 91개 과목에 대한 수강 기회를 약 1,300명의 학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거점학교에 방과후나 주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뿐만 아니라 블렌디드(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온라인 등 유연한 수강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고 전북교육청은 강조했다.

일반계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 교육은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주말강좌는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 탐구(우석대) △대전환경 경제탐구(원광대) △문학과 인문학적 상상력(원광대) △첨단 물리학(전주대) 등 4개의 전문 강좌가 개설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거점학교와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며 "학교 안팎의 경계를 허물고, 대학 등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학생수련원, 농한기 마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봉읍 마을주민 대상 심폐소생술·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원장 송영임)은 3월 5일부터 운봉읍 주민을 대상으로 '농한기, 마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현장응답실'과 연계해 진행하며 공안마을, 용산마을 등 6개 마을에서 실시한다.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상황별 응급처치,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을 전달한다.

송영임 원장은 "마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주민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는 지역을 확대해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



송영임 원장은 "마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주민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는 지역을 확대해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24년부터 시작된 안전 교육은 지금까지 운봉읍 28개 마을과 인연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실시했다. 김홍태 기자 kht@

남원학생교육문화관, 독서캠프 성황

초등학생 74명 대상 책과 놀이 접목한 활동 전개

남원학생교육문화관(관장 최원창)은 지난 2월 25일 관내 초등학생 74명을 대상으로 '2026 어린이 독서캠프: 독서 탐험대'를 운영하였다.

이번 독서캠프는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책과 놀이를 접목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작가와 만남 ▲독서골든벨 ▲독서문화 공연 등이 진행되었으며, 단순한 학습에서 벗어난 체험 위주의 구성으로 독서에 대한 친밀감을 높였다.

오전에는 독서캠프 지정 도서인 '엄마 사용법', '외계인 학교'의 저자 김성진 작가와의 만남으로 책 속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 이어진 독서골든벨은 기존의 서바이벌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점수를 쌓는 포인트 적립식으로 진행되어, 참여 학생 전원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서퀴즈에 참여하며 함께 즐기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독서캠프의 마지막은 도킹프로젝트의 입체낭독공연 '장군이네 떡집'으로 꾸며졌다. 배우들의 생동감 넘치는 연기와 목소리가 어우



러진 공연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시각과 청각으로 확장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독서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김성진 작가님을 직접 만나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고, 독서골든벨에서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푸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다. 입체낭독극도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

고 집중했다. 하루 종일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원창 관장은 "어린이들이 책 거운 놀이로 인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독서캠프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책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홍태 기자 kht@

이리공업고, 마이스터고 재도전

지정 동의서 교육부 제출... AI+이차전지 특화고 육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리공업고등학교를 'AI+이차전지'분야 마이스터고로 육성하기 위해 소매를 걸어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이리공업고와 협력해 'AI+이차전지분야'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을 위한 지정 동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리공업고를 이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전략산업과 직업교육을 연계해 현장 맞춤형 기술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리공업고는 2024년도에 마이스터고 지정을 신청했으나 최종 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의견을 반영

하여 교육과정과 인프라 계획을 개선해 이번에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번 교육부 공모는 지자체 협업을 넘어 산업통상부의 투자·육성 계획과 연계한 '정부부처주도형'으로 추진된다. 국가전략산업-직업계고-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신산업 기술 인재 양성 정책에 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제출한 지정 동의서에는 이차전지 분야에 AI를 접목한 AI+특화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홍태 기자 kht@

PA·AV 산업의 뉴리더 (주)케빅은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약속드립니다.

학교방송시스템 우수제품기업 주식회사 케빅

장영실상 수상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등록

우수디자인 선정

우수발명품

GS인증 1등급

G-PASS 인증

주식회사 케빅
www.kevic.com

본사: 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105, 1동 606호 (민락동, 의정부 더리브 센텀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공장: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제품문의 1661-2669

[부안 교육문화회관]

[전남 예술고등학교]

[신남 중·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서석홀]

[철원 고등학교]

[서울 매봉초등학교]

殷字·東夷·韓民族 이야기

무지개, 한자 속에 새겨진 색과 신화

무지개는 누구에게나 신비롭다. 비가 갠 뒤 하늘에 걸리는 곡선, 일곱 가지 색이 겹쳐진 장면을 우리는 자연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린 시절 과학책에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순으로 줄 세워 배웠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이 현상은 단순한 스펙트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고대 동이족 사회에서는 무지개의 색을 자연 관찰과 신화, 인간과 연결해 해석했고, 그 흔적이 한자 속에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먼저 서양에서 무지개 색을 기억하는 방법을 떠올려보자. 영어권에서는 R.O.Y.G.B.I.V.라는 이니셜, 즉 Red(빨강), Orange(주황), Yellow(노랑), Green(초록), Blue(파랑), Indigo(남색), Violet(보라)를 외운다. 15세기 영국, 요크 공작 리처드의 장미 전쟁 패배와 연결해, 교육과 기억을 돕는 장치로 정착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세기도 쿠후세이(世も世も今や昔)란 이름으로 비슷한 체계를 가졌지만, 중국이나 고대 동이족 사회에는 이렇게 알파벳식 축약 표현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무지개의 색은 자연과 인간, 신화적 존재를 결합해 문자와 그림으로 표현되었다.

□ 홍색(빨강) - 용과 불타는 색의 상징

무지개의 첫 색, 빨강은 동이족에게 단순한 색상이 아니었다. 갑골문 속 기록을 보면 무지개는 '북쪽에서 내려와 강에서 물을 마시는 신비한 생물'로 묘사되었고, 종종 머리가 두 개인 용으로 그려졌다. 이 용은 암용과 수용으로 나뉘는데, 수용은 화려한 색, 특히 빨강을 띠었다. 초기 갑골문에서는 뱀과 공(큰 것)을 합쳐 거대한 용으로 표현했고, 이후 소전과 해서에 이르러 용이라는 상징이 정교하게 확립되었다.([그림 19] 참조)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 빨강을 '불타는 붉은색'으로, 중국에서는 비단에 염색한 '홍자'로 표현했다. 관련 글자로는 적(赤), 홍(紅), 주(朱), 단(丹), 비(緋) 등이 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색을 넘어, 인간과 신화적 상상, 그리고 제의적 의미까지 포괄한 색이었다.

□ 주황색 - 등자와 황자

주황색은 자연과 인간의 생활을 연결한 색이다. 한국에서는 '불굴 주자'와 '황자'를 합쳐 주황색을 표현했다. 등자는 인도에서 유래해 한국에서 재배가 어려웠지만, 색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채택됐다. 황색은 갑골문에서 태반과 출산 장면을 묘사하면서 발전했다. 갓 태어난 아이의 피부색, 건강과 번식의 상징, 그리고 귀중함을 나타내는 황금과 황제, 옥토와 연결된다. 이렇게 주황과 황색은 단순한 색을 넘어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다.([그림 19] 참조)

□ 초록색 - 풀과 우물, 생명의 색

초록은 무지개의 자연적 색상을 대표한다. 갑골문에서는 우물가의 싱싱한 풀 그림에서 비롯됐다. 당시 동이족은 녹색과 청색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자연 속 푸른 풀과 물빛을 모두 포

[그림 19] (赤, 紅, 朱, 丹, 綠, 靑, 紫) 자의 형성과정

Table with 4 columns: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Rows: 赤, 紅, 朱, 丹.

함하는 개념이었다. 소전과 해서에 이르러서는 명주실과 우물물 그림으로 발전해, 청록빛을 표현하는 문자가 만들어졌다. 즉 초록색은 자연의 생명력과 물의 신비를 동시에 담은 색이었다.([그림 19] 참조)

□ 파란색 - 폭람과 청자

파란색은 폭람, 즉 폭염색과 연결된다. 소전 단계에서는 풀과 감 그림으로 발전해, 폭을 물에 적서 햇볕에 말린 청

색 천을 상징했다. 우리가 잘 아는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속담은 청자가 먼저 있었고, 쪽람은 소전 시대 이후 등장했다는 연구가 많다. 동이족의 색 개념에서 파랑은 염색 기술과 자연의 색이 결합해 문자가 된 사례다.([그림 19] 참조)

□ 자주색 - 명주실과 색의 혼합

마지막으로 자주색은 명주실에 빨강과 파랑을 혼합해 얻은 색이다.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사람, 말, 명주실 그림이 합쳐져 자주빛을 나타내는 글자로 정착했다. 현대적 감각에서 자주색의 범위가 넓어 명확한 정의는 어렵지만, 혼합과 조화를 통한 색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그림 19] 참조)

□ 무지개 색과 문화적 의미

이처럼 무지개는 단순히 하늘의 현상에 머무르지 않았다. 고대 동이족은 비 온 뒤 나타난 하늘을 통해 자연, 인간, 신화적 존재를 연결했다. 각 색은 생명, 풍요, 불, 물, 염색 기술 등 구체적인 경험과 결합해 의미화되었다.

문자의 발전도 흥미롭다. 갑골문에서는 그림처럼 구체적 도상을 사용했고, 금문과 소전을 거치며 도상과 의미가 점차 추상화됐다. 해서에 이르러 현대 한자로 정착하면서도 초기 의미와 상징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지역별로 색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다. 한국과 일본은 동이

족 전통의 색상과 상징을 비교적 그대로 유지했지만, 중국에서는 문화적, 지역적 차이에 따라 일부 색상을 선택하거나 방식이 달라졌다.

□ 결론: 무지개, 자연과 인간의 기록

무지개의 색은 단순한 스펙트럼이 아니었다. 고대 동이족에게는 인간, 자연, 신화가 결합된 문화적 상징이었다. 그 의미는 문자 속에 새겨졌고, 시대를 거치며 한자로 정착했다. 오늘날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느끼는 경이로움 속에는, 수천 년 전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느끼고 기록한 경험이 겹겹이 쌓여 있다.

R.O.Y.G.B.I.V.라는 영어 축약법은 현대인의 기억 장치일 뿐, 동이족은 용, 풀, 물, 명주실, 신화적 존재를 통해 색을 이해했고, 문자로 남겼다. 한 글자, 한 색 속에는 자연 관찰, 인간 생활, 신화, 사회적 의미가 결합되어 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긴 시간과 문화의 흐름을 함께 보는 셈이다.



□ 육우균

◇ 교육연합신문 주필

전 재 학 의 교 육 칼 럼

이제는 '뽑는 교육'에서 '키우는 교육'을 지향해야

"이제 교육은 선언해야 한다. 인재 양성의 길은 선발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인재를 국가의栋梁(棟梁)으로 간주해 우수한 인재만을 뽑으려고 몰입해 왔다. 그래서 역량을 키워 잠재력이 높은 인재를 많이 확보하는 학교가 소위 '명문고', '명문대'로 이사회에서 우위를 독점했다. 이는 처음부터 능력이 출중한 인재를 학교에서 교육의 기능을 발휘해 더욱 출중한 인재로 키웠다고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또래 집단, 경쟁을 통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우수한 결과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는 모르나, 이를 두고 우리는 인재를 길러 왔다고 스스로 믿어 왔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인재를 '키운' 것이 아니라, 미리 자라난 아이를 골라내는 일에 더 익숙했다. 시험은 능력을 발견하기보다 순위를 만들었고, 학교는 성장을 돕기보다 선발을 준비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인재 양성의 방향은 뽑는 것 즉, 선발이 아니라 키우는 것, 성장이라고 말이다.

선발 중심 교육은 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짧은 시간 안에 상위 몇 퍼센트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가능성은 무시된 채 사라진다. 성장할 수 있었던 아이, 늦게 피는 아이, 다른 방식으로 빛날 아이들

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든다. 선발은 결과를 가르치지만, 성장은 가능성을 키운다. 교육이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계의 교육 선진 사례는 이미 이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핀란드는 조기 선발과 학교 서열화를 철저히 배제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높은 성과를 유지하면서도 학력 격차는 작다. 이는 특별한 아이들만을 골라낸 결과가 아니라, 대다수 아이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지원한 결과다.

국내에서도 작은 변화의 가능성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경쟁 대신 과정 중심 평가를 도입한 학교, 성취 수준보다 학습의 변화와 노력을 기록하는 교사들, 뒤처진 학생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성장시키는 학급 운영 사례들은 이를 말해 준다. 아이들은 서열이 낮아져야 아니라, 기다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것임을 말이다.

성장 중심 교육은 느리고 번거롭다. 단기간에 성과를 수치로 증명하기 어렵고,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교육은 본래 느린 일이다. 씨앗을 뿌린 다음 날 열매를 요구하지 않듯, 아이의 가능성 역시 시간과 신뢰 속

에서 자란다. 선발은 관리가 쉽지만, 성장은 돌봄과 책임을 요구한다. 그래서 성장 중심 교육은 곧 기성 세대의 각오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제 선언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더 빨리 앞서가는 아이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어찌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하도록 돕는 것임을. 시험은 줄 세우기보다 학습을 돕는 도구로 되어야 하고, 평가는 탈락의 근거가 아니라 성장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학교는 선발의 전초기지라 아니라, 가능성이 안전하게 자라는 공간이어야 한다.

인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 그리고 그 출발선은 결코 같지 않다. 교육의 역할은 출발선의 차이를 이유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정의 본래 의미이며, 미래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뽑는 교육'에 머물 수

없다. 이제 교육은 선언해야 한다. 인재 양성의 길은 선발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말이다. 그 선언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학교는 다시 희망이 될 것이다. 이는 곧 학교와 국가의 존재 이유인 사회적 신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장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최 운 용 의 100세 칼 럼

100세 시대를 위한 내 몸 사용 설명서

○ '오십견'은 시간이 약일까? 방치하면 굳어지는 어깨

어깨가 굳어 팔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극심한 통증. 흔히 '오십견'이라 불리는 이 질환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 또는 '동결견(Frozen Shoulder)'입니다. 이름 그대로 어깨 관절을 둘러싼 주머니(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져, 관절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50대 전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십견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PC의 장시간 사용,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30~40대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오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낫는다?"

오십견에 대해 대중이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특별한 치료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병"이라는 인식입니다. 과거에는 이 질환을 스스로 치유되는 질환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최신 임상 연

구에 따르면 이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사실입니다.

미국 의학 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된 2026년 통증, 흔히 '오십견'이라 불리는 이 질환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 또는 '동결견(Frozen Shoulder)'입니다.

초기 염증기에는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이후 관절이 굳어지는 동결기를 거쳐 서서히 풀리는 해동기로 진행되는 데, 이 과정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약'이라며 고통을 참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굳어진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현대 과학이 밝혀낸 부드러운 침 치료의 힘

굳어진 어깨를 부드럽게 풀고 통증을 덜어내는 데 있어 침치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여러 국제

연구를 통해 그 과학적 원리가 명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째, 침과 일반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2024년 발표된 통증 관리 전문 국제학술지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두 치료를 함께 받은 환자들이 물리치료만 받은 환자들보다 어깨 통증이 더 많이 줄고 움직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침 자극이 우리 몸의 천연 진통 물질인 엔도핀 분비를 돕고, 환부의 혈류를 늘려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침이나 약침 같은 다양한 한의 기법은 어깨 속 굳은 조직을 직접적으로 풀어줍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최신 연구들은 전기 자극을 더한 전침이나 정제된 한약 성분을 주입하는 약침이 단순한 일시적 통증 완화를 넘어 어깨 관절 주변의 염증 물질을 억제하고, 유착되어 엉겨 붙은 근막 조직을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 집에서 실천하는 굳은 어깨 회복 운동법

굳어진 관절의 운동 범위를 안전하게 회복하고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스트레칭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자가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 전자 운동: 테이블이나 카운터에 건강한 쪽 손을 짚고 상체를 살짝 숙인 뒤, 아픈 팔을 아래로 편안하게 늘어뜨립니다. 시계추처럼 팔을 앞뒤, 좌우, 그리고 원형으로 부드럽게 흔들어줍니다.

▶ 막대를 이용한 수동적 내회전: 등 뒤로 가벼운 막대(예: 자)를 잡고, 건강한 손으로 막대의 반대쪽 끝을 가볍게 잡습니다. 건강한 팔로 막대를 가로 방향으로 당겨, 아픈 쪽 어깨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동적으로 당겨지도록 30초간 유지한 뒤 30초간 휴식합니다.

○ 오십견 자가 관리 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

오십견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세심한 관리는 병원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하기 전에는 걷기나 고정식 자전거 타기 같은 부담 없는 활동으로 5~10분간 체온을 높

여 몸을 워밍업해야 근육과 인대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엄격히 지켜야 할 원칙은 '운동 중 결코 통증을 억지로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편안한 느낌이 드는 부드러운 범위 내에서만 관절을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병기(초기 극심한 염증기인지, 이후 굳어지는 동결기인지)와 환자가 가진 동반 기저질환에 따라 관리 및 운동 방법이 철저히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극심한 염증기에 무리한 운동을 강행하면 오히려 관절낭의 염증이 더거기 됩니다. 따라서 막연한 자가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정확한 상태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한 치료와 맞춤형 재활 운동을 병행하여 튼튼한 어깨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1. Achilova F, Daher M, Nassar JE, Daniels AH, Abboud JA. Frozen shoulder: Diagnosis and treatment of adhesive capsulitis. Am J Med. 2026 Jan 23;S0002-9343(26)00055-0. doi: 10.1016/j.amjmed.2026.01.021.
2. Xu B, Zhang L, Zhao X, Feng S, Li J, Xu Y. Efficacy of Combining Acupuncture and Physical Therapy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Frozen Should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ain Manag Nurs. 2024 Dec;25(6):596-605. doi: 10.1016/j.pmn.2024.06.009.

3. Kim D, Park KS, Kim SA, Seo JY, Cho HW, Lee YJ, Yang C, Ha IH, Han CH. Pharmacopuncture therapy for adhesive capsulitis: A pragmatic randomized controlled pilot study. Integr Med Res. 2024 Sep;13(3):101065. doi: 10.1016/j.imr.2024.101065.

4. Ji R, Huang W, Weng M, Zhang M.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acupuncture-related therapies for frozen shoulder: a systematic review and network meta-analysis. Front Med (Lausanne). 2025 Nov 26;12:1673193. doi: 10.3389/fmed.2025.1673193.



□ 최운웅

◇ 큰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주)옴생약 대표이사

국무총리상 표창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 정부 조달청장 표창 |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 녹색인증 유공포상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주식회사 케이시스

APEC 2025 정상회의장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옥외 LED 전광판

조달청 우수제품 | 조달청 혁신제품 | 성능인증 | GS인증 1등급 | 녹색기술인증 | 친환경인증 | 환경표지인증 | 산업융합혁신제품 | 우수발명품

조달청 LED 전광판 계약·납품·구축 건수 3년 연속 1위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최첨단 SMT라인 보유'
미세피치 전광판 생산



국내 최초 안내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700건 이상 구축'



SMT 라인



아웃도어 라인



15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 특허' 보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적 기술 파트너'



어셈블리 라인



에이징룸

학교 설치 레퍼런스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세일고등학교 2층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대강당



온양한울중·고등학교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시청각실



천안고등학교 시청각실



용인 대지초등학교 옥외



장성백암중학교 옥외



여의도고등학교 입구



망미초등학교 본관 입구



사송초등학교 본관 입구



삼성여자고등학교 강당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



홍성 홍북초등학교 입구



대전대성여자중학교 실내 스탠드전광판



사직여자고등학교 LED배너

[전국 및 글로벌 지사·공장·물류]



대표전화

1600 - 6187

부산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더케이타워 1F~6F

서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411호

대전 | 대전 유성구 복용동로 43 도안더리브스니치너 749호

광주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IBC지식산업센터 A동 1301-B호

제주 | 제주시 서문로 33

미국 | 732 S 6TH ST, STE R, Las Vegas, NV 89101, USA

공장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9 (모라동) 백양스마트밸리 B1, 1F, 5F, 6F

부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현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서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B110호